

Cripa

Magazine #03

Actually, the Dead Are Not Dead.



크립 매거진 3호

편집.

에바 에거만, 이리스 드레슬러

필진.

줄리아 B., 린다 빌다, 로렌자 뵘트너, 안토니오 센테노, C.R.E.M.E. 콜렉티브,
이리스 드레슬러 & 한스 D. 크리스트, 에바 에거만, 발터 에고, 발레리 파브르,
샤넌 피네간, 조나 I. 가드, 라니아 호퍼, 라니아 일리체바, 야콥 야콥센, 사스키아
카펜버거, 이리스 코페라, 제미나 린드홀름, 엘리아 뢰티, 필마리, 폴 B. 프레시아도,
릭 로이터, 볼커 쇤비제, 수나우라 테일러, 니콜 보엑, 로물리 알리스 월든

표지.

로렌자 뵘트너의 비너스 밀로 퍼포먼스, 뷔템베르거서
콘스트페어라인 <정상을 위한 진혼곡> 전시 촬영

cripmagazine@gmail.com

<http://cripmagazine.evaegermann.com>

저작권 및 출판.

에바 에거만

2019 베르겐 어셈블리 <사실, 망자는 죽지 않았다> 공동 제작
Disability Studies Austria, Behindert und Verrückt Feiern Wien,
Crip Convention Vienna, Sickness Affinity group, Sick Press Berlin 와 협업.

일러두기: 《크립 매거진》은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저작물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젠더 센시티브 언어는 각 필진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필진의 글은 출판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04	유토피클럽, 에바 에거만 & 린다 빌다 Utopieklub, Eva Eggermann & Linda Bilda
05	편집부 Editorial
06	줄리아 B., 니콜 보엑 Julia B., Nicole voec
08	라니아 일리체바 Lanina Ilitcheva
09	싸이보그 디스코 베르크슈타트 Cyborg Disko Werkstatt
10	로물리 알리스 월든 Romily Alice Walden
17	안토니오 센테노 오르티스 Antonio Centeno Ortiz
22	폴 B. 프레시아도, 로렌자 뵘트너에 관해 Paul B. Preciado on Lorenza Böttner
29	볼커 쇤비제 Volker Schönwiese
31	수나우라 테일러 Sunaura Taylor
34	발터 에고 Walter Ego
39	야콥 야콥센 Jakob Jakobsen
43	조나 가드 Jonah Garde
46	C.R.E.M.E. 콜렉티브 C.R.E.M.E. Collective
47	라니아 호퍼 Rania Hofer
49	이리스 코페라 Iris Kopera
50	제미나 린드홀름 Jemina Lindholm
52	엘리아 뢰티 Eliah Lüthi

2019 베르겐 어셈블리의 일환으로 《크립 매거진》의 신간을 이룩하게 되다니 얼마나 대단한가!

베르겐 어셈블리는 현대 미술 트리엔날레로 노르웨이의 도시 베르겐에서 3년마다 개최된다. ‘사실, 망자는 죽지 않았다(Actually, the dead are not dead)’는 제목으로 명명된 2019년 어셈블리는 12명의 공동 큐레이터 그룹¹이 만들어냈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삶에 대한 고찰이 있으며, 삶과 죽음,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 비장애와 장애, 건강과 병증이라는 이항 대립을 뛰어넘는 삶을 이해하고자 몰두한다. 즉, 의학, 정치, 법 그리고 문화 제도가 형성했던 삶의 규범적 모델과 구조를 뛰어넘는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이 품고 있는 해방과 정치의 잠재성을 살펴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고찰하고 마침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예술의 능력을 탐구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어떤 영웅적인 담론이나 몸짓이 아니다. 강함과 취약함, 애도와 기쁨, 갈등과 축하, 생자와 망자를 함께 아우르는 미학적이고 해방적인 실천이다.

〈사실, 망자는 죽지 않았다〉는 전시와 폭넓은 프로그램, 퍼포먼스 그리고 영상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신작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본래 시작부터 우리는 베르겐 어셈블리가 예술, 연구, 운동 분야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들과 서로 관계 맺는 분권적인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크립 매거진》을 베르겐에 소개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크립 매거진》의 3호 제작을 지원하고자 했다.

《크립 매거진》은 〈사실, 망자는 죽지 않았다〉에서 다루는 두가지 주된 측면에 본질적으로 와 닿는다. 첫째는, 반항적이고 반체제적이며 비규범적인 신체, 예술적 정치적 실습의 도구이면서 오브제인 신체이다. 둘째는 해방과 저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게 해 줄 심미적 형태와 양식들이다. 즉 잡지들, 포스터들, 현수막들, 설명서들 그 이상의 것들이다.

《크립 매거진》과 협업하며 우리는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3호에 담긴 몇 기고문들은 《사실, 망자는 죽지 않았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전시와 연관되어 있으며, 폴 B. 프레시아도와 빅터 노이만이 구성한 ‘신체의 의회: 불가능한 의회’에 맞닿아있다. 우리는 이 상관관계들이 베르겐 어셈블리가 다른 내용과 네트워크들에게 동시에 나아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열어주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²

2019 베르겐 어셈블리 예술감독 이리스 드레슬러, 한스 D. 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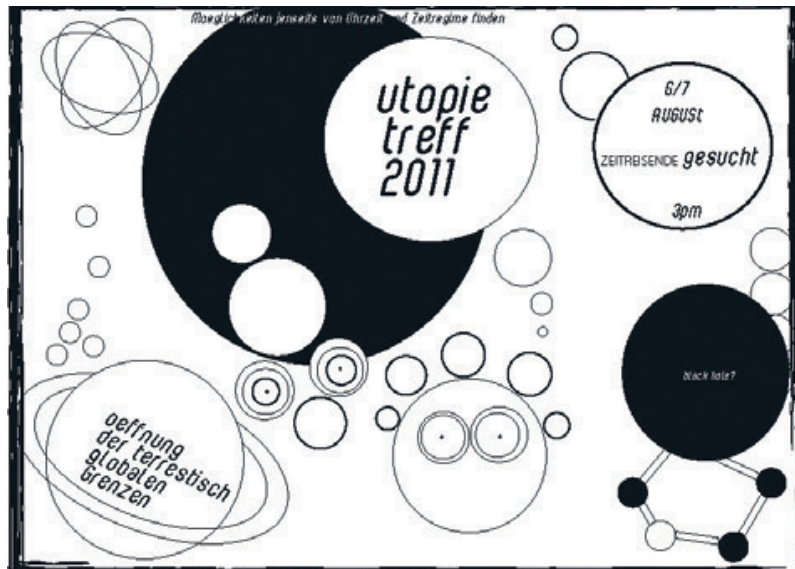
Lorenza Böttner performing Venus de Milo, unknown photographer, undated, from: Tonight, exhibition booklet, Lothringer, Munich, 1988, courtesy: private collection

1 Bergen Assembly 2019, *Actually, the Dead Are Not Dead*.

Conveners Hans D. Christ and Iris Dressler in collaboration with Murat Deha Boduroğlu, Banu Cennetoğlu, María García, Hiwa K, Katia Krupennikova, Viktor Neumann, Paul B. Preciado, Pedro G. Romero, Simon Sheikh, and Emma Wolukau-Wanambwa.

See: www.bergenassembly.no.

2 See: <http://bergenassembly.no/platforms/parliament-of-bodies>.



Linda Bilda, Utopieclub Flyer, 2011

시간여행자들을 찾습니다!

당신을 유토피아 미팅에 초대합니다.

올해에도 은하계에서 온 한 팀의 사람들이 이 대지에서 행동의 가능성들을 탐구할 것이며, 그 행동들은 미래의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3호 유토피아 미팅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1 현존하는 국경들을 완전히 개방하고 세계와 은하계를 오가는 이벤트들입니다. 이 이벤트들은 공포에 기반한 어떤 시나리오들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키워드: 세계 시민성, 글로벌 네트워크 카드, 여행 사회들, 달의 야영지, 우주 식민지).

2 이에 관하여, 중심 테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걸 특히나 제 행성을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겐 엄청난 도전입니다. 시간의 규범적이고 순차적인 개념과 생물정치적인 체제 그 너머에는 어떤 가능성이 놓여있을까요? 오늘날(현재의 행동 범위)의 파열 그리고 군중에 더불어, 우리는 역사를 초월하고 미래를 그려내는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색다른 접근으로 완수될 것입니다. 이 접근은 구체적인 소원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가장 먼 미래의 이야기를, 가장 깊은 과거의 이야기를, 앞서 언급된 주제와 관련 있는 좌파적 관점의 이야기까지 포괄하여 창작할 겁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속도/미래에 대한, 그리고/혹은 운동/공간성/경계에 대한 소원/아이디어를 가져 오시길 요청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VA+LINDA vulgo evalinda 1 + 2.

산 정상에 선 여신*

에바 예거만

레너드 데이비스는 그의 저서 『정상성 강요: 장애, 난청, 신체』에서 “여성 신체를 사유하자면 비너스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기술한다. 장애 미학 담론에서 밀로의 비너스는 이미 하나의 주제가 되었다. 토빈 시버스와 레너드 데이비스가 이에 대해 저술하였고, 앨리스 레퍼와 매리 더피(예를 들자면 그녀의 ‘옥죄는 결박을 끊어내다(Cutting the Ties that Bind)’ 사진 연작에서)는 그들의 예술 작품에서 밀로의 비너스를 다룬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레퍼런스는 로렌자 보트너의 작품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2019년 5월 슈투트가르트의 뷔템베르크 쿤스트페어라인에서 개최된 로렌자 보트너의 ‘규범에게 바치는 장송곡(Requiem for the Norm)’ 전시에서 크립 매거진 표지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밀로의 비너스 포즈를 취한 로렌자를 보여주는 흑백 사진이었는데, 이후 그녀는 아래로 내려와 폴 B. 프레시아도가 해당 잡지에 더 자세히 기술한 “예술 작품이 살아 움직인다면 어떨까?”를 관객에게 묻는다. 이 사진은 재치 있으면서도 동시에 충격적이었는데, 나는 그 사진이 시각 예술의 규범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했다. 비너스 전통은 훼손, 파편화된 신체 및 절단에 기반하고 있다. 카자 실버만이 지적하였듯이, 필름에 신체의 이미지를 담으며 사회는 신체를 훼손, 파편화 및 거세의 가능성으로부터 격리하는 “보호막”을 형성한다(실버만, 14쪽). 우리는 상상을 통해 사지를 다시 불러온다. 이는 레너드 데이비스가 정신분석이론을 참고하며 저술한 환상해낸 사지 경험과 그리 다르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 신체, 관찰자의 신체는 사실 언제나 이미 “파편화”되어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체는 모두 파편화되었다. 환상해낸 온전한, 정상적인, 일체화된 여신, 즉 나신을 인지하여 구축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근원적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전략적이자 스스로를 구축하는(현혹하는) 여정에서 찾아낼 수 있다”(데이비스, 141쪽). “(퀴어-)장애 관점은 파괴적이고 부적절하게 구성되는 신체, 일률적 구성 너머 미래의 지평선을 떠올리게 하는 신체에 집중하도록 한다”(맥루어, 155쪽).

연대기적 정상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엘리자베스 프리만은 규범적 체제에 뒤따르는 적시성을 설명한다. 그녀는 “일탈적 시간의 정치학”이 역사의 개발주의적 서사를 역전시키는 “시간 간의 관계”를 그리는 것이라 한다(프리만, 58, 63쪽). 로렌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일탈적 시간의 정치학과 미술사의 불구화를 대리하게 되었다. 크립 매거진은 보편적인 불구(하위)문화의 유물을 모은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적 투쟁과 연대하며, 시간을 넘나드는 탈(脫)일시적 연결성과 공동체를 추구한다.

욕망, 시간여행, 파편화된 신체는 이번 호 내 다양한 부분을 연결하는 주제들이다. 이번에 멋진 작품으로 기여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크립 매거진 3호는 베르겐 어셈블리 2019를 진행하며 합작으로 제작되었다. 제작을 돕고 지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특히 아이리스 드레슬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 호는 한 두 사람이 편집하는 마지막 호가 될 것이다. 우리는 크립 매거진을 공동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운영할 방안을 잠시 찾는 중이다...) 지원을 제공하거나 작업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연락 부탁드린다.

References

- * Bananarama. 1986. “Venus.” From the album True Confessions. Davis, Lennard J. 1995. Enforcing Normalcy: Disability, Deafness, and the Body. London: Verso.
- Freeman, Elizabeth. 2010. Time Binds: Queer Temporalities, Queer Histories. Durham, NC,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McRuer, Robert. 2006. Crip Theory: Cultural Signs of Queerness and Disabi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ilverman, Kaja. 1990. “Historical Trauma and Male Subjectivity.” In Psychoanalysis and Cinema, edited by E. Ann Kaplan. New York: Routledge.

정상성 비평 고찰

줄리아 B., 니콜 보익

최근 기쁘게도 장애학(Dis/ Ability Studies)과 불구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 이를 접한 나의 생각과, 특히 감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이론을) 받아들이고, 고찰하고, 변환하고, 전복하고 더 나아가 구축하는 작업이다. 나는 전형, 즉 이러한 사고를 연결하는 육체성을 기어올라 뒤흔들으로써 이를 수행하고자 한다.

잠시동안 나의 정신을 가다듬게 만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전에 단 한 번도 불구 이론을 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알기로는, 내가 거쳐간 (퀴어) 여성주의, 좌파, 반인종주의 맥락에서도 불구 운동(Crip Movement)이나 “불구”에 대하여 어떠한 표현이나 언급도 없었다(적어도 그 어떤 것도 접근성에 관한 다층적 질문 그 이상을 던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오랫동안 정확히 이 교차점에 대해 작업해온 나는, 내 작업 과정 전체가 (이제는 내게 새로운?) 불구 이론 미학이나 작품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적어도 우리의 대화에서 내가 접한 다양한 의견 저변에 깔린 불구라는 표식과 힘, 즉 권한은 내게 낯설었다. 이는 워크숍/폐막 브런치에서 녹아가는 키위 아이스크림과 소풍 담요 위 재미들을 앞에 두고 내가 바로 답변을 준 이유이다. 새롭고 풍부한 자료와 의견, 방법론(독자, 연결, 대화, 용어, 이미지, 학설 및 작업방식의 양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이는 나의 수많은 질의들과 중첩되고 연결되었으면서도 반대로 내게 완벽하게 색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법을 접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나의 사고 과정을 재구성하고 나에게 (시각적) 언어를 선사하였다. 내가 이러한 새로운 구성을 인지하게 한 명확한(확실한) 예시는

줄리아 B, 모피(의인화된 동물 의상*) 인격 증대와 정체성 문제 처리. 모피를 입어 변조된 감각 투입값 (보기, 듣기, 냄새 맡기, 감촉 느끼기). 이 작품에서 정체성은 개념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물체에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식이다. 내 생각의 흐름이 한나 홀의 “매드러빙(Madloving)”과 교차하는 엄청난 지점이 꽤나 많았다. 내가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온 이들에게 해당 영상 링크를 보내주었는데, 이는 우리의 작업방식에 내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협상하게 해주는 멋진 도구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한나 홀&제임스 리드비터, 매드러빙: 광증과 작업하기(2017년 11월 베를린 HAU에서 열린 페스티벌 테이크 케어(Festival Take Care) 프레임워크에서)

바로 액세스 라이더스(Access Riders)가 발달시킨 방법이었다. 상이한 맥락에서 작품 활동을 하도록(예를 들자면, 대학 학회, 쓰레기와 오염된 음식을 이용한 퍼포먼스, 삼페인과 후원자들이 있는 화랑에서 진행하는 전시) 종종 요청을 받는 이로써, 나는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품 활동 환경과 정치적 복잡성을 타협해왔다. 이는 불행히도, 내가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까닭이다.

세미나에서 이뤄진 총체적 담론 또한 내가 일하는 방식과 세속적 소유에 관한 (더럽고 엉망인) 질문과 문제를 파헤쳐, 내가 작업하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를 가시화하여 인지하고 견드려보도록 복돋았다. 항상 이러한 타협이 어둡고, 유동적이며,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몇 번이고 견고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이들을 매우 안정적으로 (분명히 표현하게) 만드는, 이미 존재하는 기반, 도구, 도식과 연계하는 방식을 어렵지 않게 찾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견딜과 연계가 편안하기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잡혀 방향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가졌다는 걸 깨닫는 것과 같다. 불구성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는 구성 요소일지도? 흠. 달살이 동계 만들 정도로 추운 날씨에 온기를 꺼안고, 나중에 이를 다시 버리는 듯한 기분이다.

어둡고, 불명확한 발상이 행동의 입장(그리고 또한 인지의 입장)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고착을 통한 권한 부여의 순간은 이러한 거미줄이 빠르게 변화하는 순간이고, 나는 이러한 역학에서 빠져나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또한 내가 정체성 정치보다는 탈동일시에 더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계를 짓고, 구분하고, 표시하는 일보다 양가성을 선호한다.

어떤 입장은 실제로 유익하며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병리화된 정체성(“증세”, “예방 조치를 취하다”, “앓다”)의 이미지를 단순화하고 재생산하는 점(미학적 관점에서) 또한 많았으며, 이는 결국 정체성 정치학 구조와 환자로 식별하는 전체적인 총체적 구조를 그대로 전달한다. “Weglaufhäuser des Pops” (크립 매거진 2017년 2월호)에서 에바 이거만과 나눈 대화에서, 디드리히 디더릭센은 사회주의 환자 단체(SPK)에 대해 “환자 단체에서 정체성은 질병, 즉 환자임에 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체] 투쟁의 목적은 환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제적 식별과 정체성 표현의 역설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1페이지 이전 텍스트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다. Aus der Krankheit eine Waffe machen(질병을 무기로 만들라)라 불리는 SPK 발행물에 담긴 이미지에는 “자본주의자 사령부에 누군가가 던진 돌과 누군가가 앓는 결석은 같다. 우리를 결석으로부터 보호하자!” “이론과 현실이 함께 뒤섞여,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역자 주: 의역)”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해답은 이를 종결하는 대신, 안정과 확실성의 감각을 약화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SPK의 이러한 표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동시적인 모순과 강렬한 시각적 언어가 아니라, 이가 어떻게든 관점을 변화시켜냈다는 점이다. “우리를 결석으로부터 보호하자!”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이 지점에서, 인식의 구조는 뒤죽박죽이 되며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불구(Krüppel)의 대리자 공간(행동)에서 강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981년도 경찰 배턴(Krüppel)으로 때리는 것처럼, 이가 배태성의 역학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며, 전복하고자 하는 데 있어 완전히 단호하며, 이의 공간에서, 완전히 새로운 협상 분야를 구축하여, 이로써 새롭고 유동적인 (탈)동일시의 이미지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Julia B, fursuit, 2019 (Images by Eva E., Art University Kassel)

거대한 감정, 거대한 행정 효과.

라니나 일리체바¹ 발체, 릭 로이터² 엮음

¹ 라니나 일리체바(lanina Ilitcheva):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티스트,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다.

² 릭 로이터(Rick Reuther): 미국의 팝 재즈 보컬리스트.

음악 - 다이아리

2009년 6월 11일

내 젖꼭지는 정말로 작아졌다. 내 예쁜 젖꼭지. 부끄러운 일이다.
내 몸은 죽어가는 쥐를 먹던 동물원의 스라소니처럼 몇년간
호르몬을 공급받아왔다. 이제 스라소니는 해방됐지만 역시나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의 식욕은 미흡하고 욕정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르가즘을 스스로 만드는 건 말도
안된다. 그게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니 말이다. 마치 시스템은
완전하게 종료되었는데 계속 재부팅을 시도하는 것만 같다. 다시
사냥을 배우려는 것 같다. 이상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는 않았었다. 모두 잘 될 거고 나아질 거라고, 사냥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내 마음은 재부팅되지 않았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굴러가는데다 심지어는 더욱 명료하고
진실 해져만 간다. 그런 마음은 상황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기대치는 높고, 스라소니는 구더기를 먹는 정도에 안주하지
않을 터다. 보기만 해도 갈라진 입술에 침이 돌 만한 튼실한 쥐를
원하는 것이다. 스라소니는 먹이에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고 절정에
달한 입맛으로 몹시 게걸스러워 할 것이다. 내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버섯 뿐이니 애석할 따름이다.

무제 72

2013년 11월 2일

그리고 내 몸, 내 몸에는 방이 많다. 다른 이들의 집에는 유명이나
습관들이 산다면 나의 방엔 사람들이 살고, 전등은 리듬도 이유도
없이 점멸한다. 그중 폐와 횡격막 사이 공간에 살고있는 기다림은
창가에 서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지만 그
밖으로 나가거나, 기다림을 멈추기는 두려워한다. 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나는 반응할 수 없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잊어버렸다.
언제 한번 내가 반응을 했을 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감고 무작정 내 손들로 주변을 느끼기 시작했고, 반응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나는 마구 달려가며 큰소리로
진언을 외쳤다. 파괴음과 활강 바람의 포효가 들리지 않도록.
그래, 맞아, 결정된 거야, 그래, 그래, 나는 읊조린다.

깊은 빛에 빠져들었다. 끝도 없이 추락했다. 추락 속에 살아가고
절대 죽지 않는, 끝없는 비행과 광기, 디딜 땅도 없고 중력은 의미를
잃었다. 7년이 지났다.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누구도 나를
붙잡을 수 없다. 누구도 나를 따라잡을 수 없다. 나는 그 방으로 곧장
들어와 창 밖을 보고 있는 기다림의 뒤통수에 총을 들이밀고 말할 수
있다. 다 끝났어. 계속 그러고 있을 필요도 없어. 가서 좀 쉬어.
7년 동안 한 숨도 못 잤잖아.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없다.

여기 공짜로 목을 방이, 한 구역이, 큰 공간이 있다. 거기에는
활강 바람이 울부짖고 있다.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면 환영이다.
거기에는 오래된 꽃병도 많이 있다. 다이너마이트를 좀 가지고
와도 좋을 것이다. 가끔 쓸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쿠.

완성됨

나의 바로 앞에 고독이 보인다. 그것은 빛이다.

호호로스, 뮌헨, 2018

6

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유니콘이라곤
여기에도 멀리에도 없는 곳.

사람들이 더이상 천둥과 폭우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
헤로인이 필요 없는 곳.

나의 초능력은 멋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만육천마리의 소가 나의 평화 공간에 살고 있고, 난
헬리콥터에 타고 그들을 지켜봅니다.

작은 소년이 스파이더맨 티셔츠를 입고 볼링을 하네요,
나도 너와 같단다.

내가 빠꾸기라면 나는 알 속에 박혀있을 거예요.

나는 싸구려 동물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청소년들을 끌어 모읍니다.
 나의 군대.

그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사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내 감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다섯번을 짓고 뒤로
 공중제비까지 넘는 이 핑크색 토이 푸들로 상상해보세요.

관련성은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게 배우라고 했죠, 그리고
 나는 상냥히 거절했어요.

나는 논문과 이론과 문화와 철학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어두운 자아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즐기지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81

아인슈타인 박사의 결론: 이제 새로운 집단은 없다. 익숙한
 집단은 줄어들고 이들은 저장 공간을 점점 거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의 친구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축하하면 되겠는가?
 즉, 그러니까: 엇먹어라 이 암 덩어리야. 내가 너보단 강해. 모두가
 성공 했어. 위험도 보상을 받았어, 여행, 완고, 분노, 끈기, 의지,
 과대망상까지도. 망했어, 망했어, 망해버렸어! *엉덩이를 흔든다*
 팔의 붕대를 풀었는데 거기 있어야 할 상처가 안 보이네. 아하,
 아하. 그럼 누군가가 마침내 말하지. 수습이 불가능해요. 집에는
 못 가겠네. 주치의가 팔 전체를 마비시키거나 종양을 제거한
 것일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종양 뿐 아니라 팔 기능도 문제야.
 모두가 혼이 빠져서는 착한 어린이들이 부활절 계란을 찾듯
 새로운 전략을 찾아 뛰어다녀. 한 귀여운 의사는 내 호르몬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알려주면서 활짝 웃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었어. 일주일의 방사선 치료와 이주일의
 키토제닉 식단을 병행하고 면역 요법에 매달리면 몸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불길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어쩌면 이
 찌글찌글 찌그라든 몸뚱아리가 천하무적의 몸이 될지도 몰라.
 점점 더 많은 조짐이 그 천하무적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거든.

완성됨.

@blutundkaffee(2012-2016)

프로만:베를린, 2017



Eva Egermann & Der Fahrende Raum, Cyborg Disko Werkstatt, 2018

1.

퀴어 크립 은 지하세계에서, 황무지에서, 휴경지에서 성장한다. 눈에서도 멀어지고 마음에서도 멀어진 곳에, 우리가 잊어버린 축축하고 비옥한 덩불의 그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리고, 알을 낳고 싹을 틔운다. 흐느적거리고 절름거리고 병든 몸들, 퀴어의 몸들, 섹시한 몸들과 무성의 몸들이 잊혀진 땅에 재워져 있으며 그 땅은 안잘두아의 경계지 의 누이이자 이리가레이의 저지대 의 누이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린다. 병자의 황무지에서 성장하고 이동하고, 흐르고 변모하고, 난잡하게 성교하고 씹어간다. 당신의 디너 파티와 고급 주택과 클럽 나이트와 아트 쇼 아래서, 우리는 번식하고 수를 늘려 힘을 기르고 우리의 뿌리를 모아 엮는다. 잡종을 만들기 위해,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주의’들에 저항하는 초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일한다.

우리는 두드린다.

우리는 망치질한다.

우리는 들어갈 준비가 됐다.

2.

퀴어의 미래는 변변찮은 미래다.

퀴어와 불구자와 병든 미래는 신체를 다음으로 간주한다. 약함, 취약함, 오류가 있는 것, 끝없이 변하는 것, 병에, 질환에, 의존성에 끝없이 가까워지는 것.

우리의 의존성을 축하하자!

우리의 약함으로 서로를 붙잡자!

당신의 나약함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당신의 병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3.

당신은 지하세계, 황무지들, 휴경지들보다도 위대한 집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여기 있게 허락해주겠다. 당신이 숨쉴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삶의 순환과 병자의 비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는 생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승선을 향한 질주도 없다.

잊혀진 몸들은 서로를 잊지 않는다.

(당신이 혼자 남겨지지 않을 걸 알고 있는데 애써서 우리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

4.

우리는 침묵으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상징으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손길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깜깜한 공간과 잊혀진 장소에서 이야기한다, 우리는 새어 나온 빛 안에서
이야기한다, 당신이 우리를 들여 보내주지 않는 그 공간의 틈에서 새어 나온.

당신들의 문을 열어라! 분리의 벽을 때려부숴라!
계단들과 접근 불가능한 공간을 불도저로 밀어버려라!

당신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사로 배치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그 경사로를 우리의 덩불까지 낮추어 연결해야 할 것이다.

5.

그리고 장애 없는 몸이 더 나은 몸이라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성애자의 몸이 더 나은 몸이라고 말하는 자들!

백인의 몸이 더 나은 몸이라고 말하는 자들!

시스젠더의 몸이 더 나은 몸이라고 말하는 자들!

퀴어의 미래는 이런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다!

퀴어의 미래는 접근 가능한 미래다!

퀴어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기를 요구한다!

6.

우리는 우리 환경시스템이 그릇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종족의 취약함 역시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비장애인의 그 모든 교만, 비장애 그리고 인류세.

이들이 오늘날의 우려다.

우리는 교훈을 담은 미래 이야기다.

이 행성이 병들어가면 우리 모두 병들 것이다.

미래가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인류우월주의의 집합체를 빼앗길 것이다.

우리는 신중하고 유일무이한 독립체가 아니다.

우리는 힘있고 지배적인 몸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 모든 포상의 지킴이가 아니다.

7.

병자들은 찌꺼기에 의지하는 삶에 익숙하다. 우리는 찌꺼기들로 교수대를 만든다. 우리는 환하게 불을 켜 하얀 공간의 **공동체**를 오직 회사를 위하는 기계들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차별과 무관심을 벗어나 관계를 구축한다. **우리는 당신의 위계질서를 비스듬히 거슬러간다.** 우리는 기대고, 지원하고, 앞과 옆으로 천천히 나아가며 어디서도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이들을 수집한다.

우리는 관대하다, 서로 접촉하여 스며든다, 우리의 자원과 몸과 능력을 모으고 우리의 **퀴어성과 병증에 경배한다.**

해킹/자가투여/주사/돌봄/치유/축하/위로하기/애도하기

우리에게 합당한/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미래를 건설한다.

8.

우리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당신의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라.

당신의 정신과 몸과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라.

우리를 고용하라!

우리에게 지불하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기술은 당신의 일과 삶을 이 병자의 군대에게 열어 보여줄
수많은 도구를 당신에게 제공하고 있다, 키보드와 이메일과
인터넷 연결로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왜 나의 운동은 장애인을 배척하는가?

왜 나는 최소한의 기본도,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9.

우리는 병들었다.

우리는 귀어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당신 공동체의 일원이다.

우리는 병들었다.

우리는 귀어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당신 세계의 일원이다.

10.

당신의 몸도 썩어가고 있다. 당신의 몸도 거기 앉아 이 글을 읽는 동안 늙어가고 있다. 운이 좋다면 당신도 어느 날 병이 들 것이다, 어느 날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그들의 병든 몸을 당신이 보살피고 돌봐 주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어찌할 바 모를 것이다. 왜냐면 당신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약한 몸이 무가치하고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주거나 나눌 만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혹은, 당신이 우리를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을 요구한다!

당신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11.

우리가 마주한 배척은 인종, 계급,

젠더, 능력, 그리고 문화 규범의 구축에 따라 악화되었다

12.

우리는 가장 취약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를 우선시 해야 한다.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의 다양성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중 하나가 선택 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중 하나가 우리 전부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건설한 미래들이 접근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면 퀴어의 미래가 아니다.

퀴어의 미래는 오직 포괄적이어야만 혁신적이다.

13.

우리는 우리 돌봄 보조사들과 함께 간다, 우리의 이동 장치와, 우리의 산소 탱크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병증과, 우리의 **진단되지 않은, 연구되지 않은, 인정받지 않은** 몸들과 함께 간다. 우리는 방치되고 악화된다. 우리는 애도하고 위로를 표한다. 우리는 맞서 싸우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 우리는 넘어선다. 우리는 변이하고, 우리는 고양되고, 우리는 **식물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한계 위에 건설된다.** 우리는 우리 기후의 건강을, 우리 물의 맑음을, 도시의 오염을, 그리고 환경 시스템 파괴를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는 **소중하며 가치있는** 몸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병과 다름이 영광스럽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도 당신과 동행하게 하라!

크립crip: 불구, 절름거리는 말, 장애가 있는 사람.

안잘두아 『경계시대/경계선』: 퀴어 페미니스트 학자 글로리아 안잘두아 Gloria Anzaldúa의 교차성 이론을 다룬 저서.

뤼스 이리가레 Luce Irigaray: 벨기에 태생 페미니스트, 철학자, 언어학자, 정신분석학자이자 문화이론가.

우리는 여기에 변화를 일으키러 왔다. 우리는 전부를 원한다. 우리는 욕망을 요구한다.

안토니오 센테노 오르티스

“지금껏 편협하기만 했던 욕망과 쾌락의 영역에
모든 신체들을, 움직이고 느끼고 이해하는
모든 형태들을 포괄하면 어떠할지 상상해보겠는가?
여기, 혁명은 계류중인 듯 하다. 우리는 혁명을 말한다.
그 혁명이 이성애 주의 가부장제를, [즉]
자본주의 재생산에 우리 신체와 욕망을
마음대로 쓰려고 탈취해가는 그 제도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혁명을 말한다. 그 혁명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생산하지 않는
그 비루한 신체들의 쾌락을 얻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감독 안토니오 센테노 오르티스와 라울 데 라 모레나의
다큐멘터리 〈예스, 위 펍! Yes, we fuck!〉은 기능장애 보유자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섯 가지 이야기를 기록한다.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는 당사자들이 역량과 성을 근거로 억압받는
시나리오 속에서 욕망과 쾌락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와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해낼 방법에 도전한다.

본래 2019년 베르겐 어셈블리에서 발표되었던 “신체의 의회
(Parliament of Bodies)”가 이하 본문으로 이어지며 안토니오
센테노 오르티스는 이 글에서 에이블리즘의 비용, 정치적 실패,
스페인의 상황, 그리고 그의 영화가 다루는 욕망의 정치학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섹슈얼리티의 재현은 중요하다,
그 재현이 현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글과 주제: Romily Alice Walden

편집: LA Warman

그래픽 디자인: Emma Damiani

독일어 번역: Inga Zimprich

독일어 자막 레이아웃: Harley Aussoleil

영화 어시스턴트: Billy Mason Wood

독자: Clay AD, Frances Breden, Laura G. Jones, Ida Isatou Svenungsson

출판: SICK TIME PRESS, Berlin

노트:

이 선언문이 기반을 두고있는 작업은 많은 환자, 장애인, 돌봄 인력인 예술가와
운동가와 이론가들이 일구어낸 것이며 그들은 내가 영원히 감사해 마지않을 작업들을
만들어냈다. (Clay AD, Ruby Allegra, Imani Barbarin, *Ezra Benus, Eli Clare, Leah
Clements, Taraneh Fazeli, Feminist Health Care Research Group, Shannon
Finnegan, Sharona Franklin, Leora Fridman, Johanna Hedva, Sophie Hoyle,
Laura G. Jones, Alison Kafer, Carolyn Lazard, Simi Linton, Park McArthur,
Mia Mingus, Alyson Patsavas, Leah Lakshmi Piepzna-Samarasinha, Susan
Wendell, Alice Wong) 위 단체들과 개인들은 선언문과 관련이 없지만 그들의 실천은
나의 영감과 힘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내가 빛을 진 환우 동호회는 집단적 우정과 힘과
지지로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내가 이처럼 상호 연결되어있는 네트워크, 항상 성장을
거듭하는 환자 및 장애 예술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조약:

우리WE는 대문자로 그리고 작게 표기한다. <- 우리는 함께하며 강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들은 앞 글자를 대문자로 하거나, 굵은 글씨로 하거나, 혹은 모두 대문자로
하거나 크게 표기한다. <- 그들은 중요하고,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하지 않은 말은 그들이 문장의 시작이라고 하여도 대문자로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이성애 가부장제의 학계 시스템에 구축된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자유로이 소규모로 시작하여 커질 수도 있고 대규모로
시작하여 작아질 수 있다 (우리의 성장은 감시 받지 않는다).
직접 명령문에는 줄을 긋는다 <- 우리의 명령이 적시에 성사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중 기능적 다양성을 가진 이들은 의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될 시기가 왔다. 스페인에서는 일상적으로 폭력이 발생하며, 더불어 수십 만명이 시설에 갇혀있으며, 그리고 아무도 영구적인 법률 위반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사법적이거나 정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반박할 수 없어 보였던 대의 민주주의의 논리는 무엇에 실패한 것인가?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가? 나는 시스템 실패의 가능성 있는 원인들과 그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 보조사, 공공 시설 접근성, 통합교육 같은 실질적 생계 지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기능적 다양성 보유자들을 [장애인] 거주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원 등에 가두어 평행 우주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좋은 의도들과 편견과 사회적 타성은 우리를 고립시켰고 우리를 변신시켜 다양성 당사자들과 교류하지 않는 다수의 인구에게는 외계인[인 존재들]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전반적인 차별 국면은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한 전부”를 [이야기하는] 정치학을 만들어낸다. 다양성 당사자의 정치 참여는 금지되었고 우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우리 현실의 어떤 측면에 관한 필수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그들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슈를 순수하게 기술적인 문제라고 믿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건 놀랄 일이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와 춤추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모든 나이트클럽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자립생활운동의 구호인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지 말라”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를 시설에 가두거나 우리의 가족을 지원해줘서 우리가 가족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해결안의 일부가 아니다. 문제의 일부다.

에이블리즘은 값비싸다, 그리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이들은 주로 우리, 기능적 다양성의 당사자들이다. 하지만 나머지 사회[구성원]도 비용을 부담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차이를 포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해줄 사회 변화의 동력인 반면 배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큰 손실이라는 것을. 그 가장 명백한 예는 학교다. 전교생을 위한 더 나은 교육 도구를 갖춘,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을 보유한, 모든 전체 인구가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양식과 도시 구성을 갖춘 학교들[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심각성을 감안하면, 특히 우리가 더 오래 살

거고 점점 증가하는 질병과 사고로부터도 살아남을 거란 사실을 고려해보면, 우리는 성별 면에서 가장 높은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장애인과 의존 산업 전체가 가정 내 여성의 의무적인 돌봄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 노예 군대의 삶은 무가치하다. 한편, 정부 당국의 데이터 시트는 이 노동을 무급 노동이라고 말한다. 스페인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 한때 말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에이블리즘이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되찾아야 한다.

이것이 자립생활 모델이 흥미로운 이유다. 참여와 협력 생활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용어인 “자립”은 지원 없이 우리 스스로 일한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필수적인 지원을 관리할 책임과 자유를 갖고 의존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즉 의사 결정권자가 가족 구성원과 전문가들에서 기능 다양성 당사자들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고유한 자치권을 책임과 자유 면에서 유사한 환경에 놓여있는 다른 이들과 지배 관계 없이 상호작용해내는 결과물로 인정한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유로 단어 “독립(independence)”을 유지하지만, 궁극적으로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호의존을 통하여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협동 생활이 모두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우리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의 외계인으로 존재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19쪽 사진 캡션] 안토니오 센테노 오르티스와 라울 데 라 모레나,
영화 <예스, 위 펍Yes, We Fuck> 스틸컷, 2015년.



Antonio Centeno Ortiz and Raúl de la Morena, Filmstills from *Yes, We Fuck*, 2015

자립생활체계가 엘리트적이며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떨어트리려는 시도가 종종 있어왔다. 자신을 억압받는 존재로 보고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 정도의 “통과”를 “유효”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분산 과정을 수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항상 역량과 계급과 인종, 그리고 성별 특권과 관련되어 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며 늘 같은 일이 해방 운동 전반에 걸쳐 등장했다. 요지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 정치 [참여]과정을 명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이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실천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적 혹은 정신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그들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그들은 보증인과 지원 서클과 협업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또렷하게 그려낸다.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들의 조력자들의 지원을 받아 결정하는, 그리고 그들 의지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영역을 그려낸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모두가 자신의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지적 혹은 정신적 다양성을 가진 이들에게도 자립생활모델이 부합된다.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를 보호 시설에 가두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로 필수 도움 인력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지출이 크다는 점을 모든 실험과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돈 때문에 우리를 가둬 놓지 않는다. 그들의 원칙 때문에 가두는 것이다.

비록 실제로도 정부에서 나온 조항들에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조항들이 기능적 다양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립생활의 권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시범 실험과 연구들이 자립생활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왜 우리를 계속 시설에 가두는 것인가?

왜냐면 여기 더 강력한 법들이, 불문율이, 문화와 예술을 관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미디어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불문율들은 협동 생활의 맥락과는 균형을 맞추지 않은 채 강화된다. 기능적 다양성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들은 왜곡되어 있고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들 [혹은 이야기]”로 고정관념을 형성했다. 오직 “완전히 비참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었다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고아 상을 석권한 영화는 더 씨 인사이드[2004]였다). 한편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뛰어넘어 영감을 불어넣어준 영웅이자 ‘일반인’의 도움에 감사하는” 이들이 있다 (스페인에서 가장 최근 고아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는 챔피언스[2018]였다). 씨 인사이드는 개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그런 제한은 시설 감금으로 발생한다. 그런가 하면 챔피언스는 기능적 다양성 당사자들의 상황을 그들 탓으로 돌린다.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차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능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편향적이고 상투적으로 재현하고 또한 양극화를 낳기도 하는 문화적 재현은 그 대상을 영원히 어린애 취급하고 무성애화하는 시선도 포함한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로 간주되면 우리는 어린아이로 대해질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책임져야 하고 우리의 의존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관념이 형성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 다양성을 다시 정치화하기 위해 성애화해야 한다. 우리가 성적인 존재로 보여지고, 욕망하고 욕망 받는 몸으로 가시화 될수록 우리를 어린이로 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라면 가족에 의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진다. 의존의 상황은, 일상 업무의 수행과 타인의 도움을 받은 의사 결정을 포함한 그 모든 형태의 자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자신을 체계화하는가에 대한, 정치적인 질문이다. 이러한 자치는 개인 보조사나 섹슈얼 어시스턴트(sexual assistant)와 같은 도움 인력을 요구한다. 섹슈얼 어시스턴트는 다양성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신체에 성적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이로 정의되며 성애화 과정의 핵심이다. 그것이 섹슈얼리티를 경험하는 우리만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욕망과 쾌락을 통해 자신의 몸과 관계를 수립하는 방식이 우리가 타인과 모든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섹슈얼 어시스턴트가 정당한가에 대한 토론은 이제 흔하게 들려온다. 섹슈얼 어시스턴트에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필요에 부응하지 않기에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성적 쾌락 없이도 살 수 있잖습니까,” 그들은 말하곤 한다. 권리에 대한 충격적인 신념이다. 나의 아버지는 파시즘 정권 속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학교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다. 그러니 맞다, 당신은 교육 없이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 없이 살고 싶은가? 이는 나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는 정치를 “내게 필요한 것”의 관점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의 관점으로 하는가?

필요의 정치학은 오직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와 같은 두려움에만 반응하며 그 필요를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법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책임감을 치워버린다. 어쩌면 지금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욕망의 정치학을 가동할 때다. 책임감을 형성하고 개인적 사회적 약속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써의 정치학을 말이다. 이런 욕망의 정치학은 개인의 고유 욕망을 둘러싼 윤리적 합의를 요구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자분을 쌓길 바라는가 아니면 존엄과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가? 존엄의 에로티시즘을 구축하고, 이를 우리가 지은 모든 욕망의 중심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한편 우리는 우리 욕망의 경험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가끔 오직 욕망의 감각은 쾌락이 되는 것에 달려있는 듯 보이며 그 쾌락은 우리가 때마다 일련의 기술을 적용하여 성취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욕망의 형태는 죽어 있고 반복적일 것이며, 생의 복잡한 특징들을 직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동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욕망의 느낌이 쾌락의 한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욕망과 쾌락을 양극에 떨어트려 놓은 부분들이 고결한 순환 고리가 되고, 욕망과 쾌락이 그 안에서 서로를 먹여 살리며, 그들이 대응하는 모든 것들 처럼 생기 넘치도록 지키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쾌락의 정치학의 경험을 터놓을 수 있도록 의지할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시작부터, 여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공포 정치와 정상화의 신화에 짓눌렸었던 중요한 경험을 나누었다. 여성들,

성소수자LGBTQ+ 그룹, 뚱뚱한 사람, 미친 사람,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 기능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등등. 정상성의 짧은 백일몽에 살고있는 이들은 나이, 질환, 혹은 다른 상황들이 이 플라스틱 파라다이스에서 그들을 내쫓아버리면 꿈에서 벌떡 깨어날 것이다. 그러니 동맹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우리의 차이들은 병리화되고 낙인 찍혔으며, 사회의 작은 구역이 우리가 ‘용인되는’ 종착지로 남겨졌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욕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있다. 우리를 욕망하지 않는 것은 모두 동화정책 이다.

우리는 여기 변화를 일으키러 왔다. 우리는 전부를 원한다.

우리는 욕망을 요구한다.

동화정책: 본국 또는 지배민족이 식민지의 원주민이나 또는 국내의 소수민족을 자기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



정상성에 바치는 진혼곡

폴 B. 프레스아도

하나의 이미지가 몸에 정치적 주체성을 부여하거나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의 몸이 이미지를 구성하여
정치적인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로렌자 뵈트너의
시각 예술과 퍼포먼스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로렌자 뵈트너는 입술과 발로 그림을 그리고, 사진, 소묘, 춤, 설치, 퍼포먼스를 미적 표현에 활용한 예술가였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주류 예술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뵈트너의 작품은 오늘날 부각되어 신체 및 성의 규범화를 비판하는 20세기 흐름에 빼놓을 수 없는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뵈트너의 작품은 저항의 활동입니다. 기능적 다양성을 갖춘 신체나 트랜스의 신체를 의학적으로 바라보고 이국^{異國}의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신체들을 표본과 대상으로 축소하는 시선들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뵈트너의 작업은 자신을 픽션화하고, 미술사에서 유래한 시각 양식을 반체제적으로 모방하며 신체적 실험을 할 뿐 아니라, 성별 간의 구분, 미술, 춤, 공연, 사진의 구분,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 주체와 객체의 구분, 능동과 수동의 구분, 유효와 무효의 구분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살아있음의 예술

뵈트너의 전기를 생기론자의 선언문으로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렌자의 작업에서 가장 끈질기게 지속된 활동은 삶과 예술의 구분을 흐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자 뵈트너는 1959년 3월 6일, 칠레 폰타 아레나스의 독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뵈트너는 칠레에 에른스트 로렌즈 뵈트너 외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에른스트 로렌즈는 새 등지를 잡으려고 전기 철탑에 오르다가 심각한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며칠간 로렌즈는 생사의

갈림길을 오갔습니다. 양팔을 절단하게 된 다음 로렌즈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고통과 죽음의 관계는 차후에 쾌락주의와 삶의 예찬으로 변하고 그의 신체는 작가의 중요한 예술 재료가 됩니다. 연약하고 네오바로크적인 삶의 기념비가 된 것이죠. 1969년 작가의 어머니는 특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작가를 독일로 데려갑니다. 양팔이 없는 에른스트 로렌즈는 하이델베르크 재활 센터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그런 다음 리히테나우 정형외과 재활 의원원에서 소위 말하는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독일에서 콘테르간(contergan)으로 통용되는 탈리도마이드는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임산부에게 진정제로 처방되던 약이었는데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팔과 다리 기형을 갖고 태어납니다. 콘테르간의 영향으로 독일에는 특수학교가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1960년대의 대중적인 이미지로 ‘콘테르간 어린이’가 떠올랐습니다. 콘테르간의 영향을 받은 어린이 세대로 알려진 ‘콘테르간 어린이’, 그 표현은 약물로 신체가 변하는 과정이 그 어린이들을 인간도 어머니의 아이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병약자이자 기형의 인간으로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탈리도마이드 어린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발생한 의약 포르노(pharmaco-pornographic) 자본주의의 변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몸체였고, 제약산업과 미디어의 사생아였고, 소비사회의 신생 롬펜 프롤레타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밑바닥의 요람에서 로렌자 뵈트너가 태어납니다. 로렌자는 에른스트 로렌즈가 ‘탈리도마이드 아이들’이 되는 과정에 저항하며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몸을 ‘정상인’으로 재건해줄 의수의 착용을 거부하고 장애 아동으로 교육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드로잉을 하고 물감을 칠하고 춤을 춥니다.

로렌자의 탄생

에른스트 로렌즈는 의학적 진단을 등지고, 미래 사회에 장애인으로서 포섭되리라 약속하던 사회의 기대를 등졌습니다. 그리고 카셀 종합전문대학(현 카셀 예술대학)에 입학해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수학했습니다. 카셀에서 예술을 공부하면서 이름을 로렌자로 개명하고 공식적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실험적 양식의 기술로써 자화상과 춤을 이용하여 시각[예술]과 퍼포먼스의 탐구를 시작합니다. 1984년 카셀 예술대학의 학위 청구 프로젝트에서 로렌자는 유례없는 방식으로

자화상을 사용해 반체제적으로 정상성을 구현합니다. 인상파 화가의 붓질처럼 발자국을 찍어 그려낸 거대 유화 벽화였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듯 로렌자가 규범의 이미지를 입는 것은 규범 해체를 위한 하나의 진혼곡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1994년까지인 16년간의 열정적인 활동기에 작업했던 소묘, 사진, 회화, 퍼포먼스에서 성별과 성 정체성 뿐 아니라 역사와 시간 속에서 작가가 점유했던 다양한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아한 빅토리아 시대 숙녀, 팔을 다친 근육질의 청년, 발레리나, 펑크 소녀, 그리스 조각상, 플라멩고 댄서, 배트맨의 신부, 미스 월드, 성 노동자, 모델, 여행자, 모유 수유하는 어머니, 젊은 BDSM 애호가, 이카루스의 날개를 가진 갓 성인이 된 청년. 로렌자는 구현의 동시성에 관심이 있었지 어떤 고정된 상태로 정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의 복장을 입었는데 어떤 정체성으로써 여성성을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수염과 나체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여성 자체를 모방을 했다고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몸짓의 레파토리를 확장하고 그의 행동 가능성을 넓혀갔던 겁니다. 이 맥락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진은 바로, 수염과 가슴털이 난 로렌자가 부드러운 피부와 여성의 유방을 가진 로렌자의 자화상 앞에 나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얼굴 모두 관객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둘다 '나는 로렌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로렌자는 변화지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렌자의 시도를 성도착증보다는 변화의 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장애'나 '질환'이 있다고 간주되었던 몸과 주체들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고유한 삶의 실천을 만들 권리를 주장하는 역공격(counterlearning)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렌자가 자신의 발과 입을 [비장애인의] 손에 맞추고 [남성인] 자신을 여성의 옷에 넣었다고 표현한다면 틀렸습니다. 로렌자는 또다른 신체를, 또다른 예술적 실천과 정체성을 고안했습니다. 장애인도 정상인도, 남성도 여성도, 회화도 춤도 아닌.

괴물의 정치화: 불구에서 장애 프라이드로

1984년 로렌자는 『장애?!Behindert?!』라는 논문으로 카셀 예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로렌자는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신체가 예술적 재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감전 사고에 대한 일인칭 시점 연대기 그리고 그림과 춤을 통한 학습과 치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비규범적 신체를 정상성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을 비판하고 팔이 없는 신체를 사회적이고 예술적인 주체(agent)로 인정하는 예술적인 시도를

주창합니다. 르네상스기까지 기능적 다양성의 신체들은 신학적인 인식론에 기록되기를 자연에 반하는 괴물로써 몰살해야 하거나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산업 혁명기에는 정치의 시각적 체제가 바뀌면서 기능적 다양성을 갖춘 신체는 과학적 연구 대상이자 보호 시설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성형 수술과 보철 기구로 치료와 재활을 권하는 '표본'이 됩니다. 산업 혁명은 생산 가능한 신체와 새로운 물질성[의 개념]을 만들었고 특히 남성의 손이 생산의 동력처럼 신체와 기계를 관절처럼 이어주는 중심적인 장기로 등극합니다. 이 맥락에서 결함과 장애의 모델이 발생했습니다. 손이 훼손된 신체는 이성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생산적이고 무성적인 신체가 되었습니다. 정치화된 성의 모델에 저항하면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옹호하는 동시에 정체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이중의 과정을 통해 로렌자는 반체제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몸을 형성했습니다. 의학과 제도적 담론이 거세해버린 신체에 성적 매력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욕구는 규범의 정형외과학에서 탈출하고 기능적으로 다양한 신체들이 새로운 몸짓을 하도록 그들의 정치적 잠재성을 활성화하려 했으며, 로렌자는 이를 토대로 회화에서 춤, 심지어는 그만의 드레스 제작으로 나아갑니다. 한편 로렌자는 어떤 작품이 손으로 그려졌든, 또다른 살아있는 장기나 보철물로 그려졌든 예술의 관행에서 모두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받아들여지길 요구했습니다. 그 논문에는 퍼포먼스 프로젝트 <로렌자, 팔 없는 기적: 괴물(Lorenza, das Wunder ohne Arme: Freaks)>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라이프치히 축제에서, 코펜하겐의 티볼리, 비엔나의 프라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판옵티쿰(밀랍 인형관), 런던 피카델리 서커스의 이집트 홀, 파리의 경관극장과 그 외 다양한 곳에서 펼쳐진 프리쇼(freak show)를 조사했습니다. 프리쇼는 정상 규범에 맞지 않는 신체를 인간의 범주에 넣을 수는 동시에 사회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으므로 근대의 장애[개념] 발명에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프리쇼는 규범 밖의 신체를 흥물로 바라보던 신학의 체제와, 그들을 과학 탐구 및 장애 산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근대의] 과도기 사이에 변곡점을 형성했습니다. 프리쇼의 신체들이 대중적인 구경거리로 취급 당하고 보조기가 신체들을 병든 몸으로 드러내던 권력 구조, 그 편협한 가시화의 틀 안에서 로렌자는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로렌자는 강박적으로 토드 브라우닝 감독 영화 '프릭스Freaks'(1932)의 이미지로 되돌아갔고 프리쇼 포스터를 모아서 퍼포먼스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에른스트 로렌츠의 청소년기였던 1970년대에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장애 정책에서 신체적 다양성을 노동과 생산에 관련한 개인적, 기능적 결함으로



[Signature]
-4-83



Page 24

Lorenza Böttner, Untitled, 1983, pen on paper,
33.8 x 24 cm, courtesy: private
collection

Page 25

Lorenza Böttner, Untitled, undated, photograph,
courtesy: private collection

Lorenza Böttner, Untitled, undated, vintage
print on canvas, 120 x 90 cm, courtesy:
private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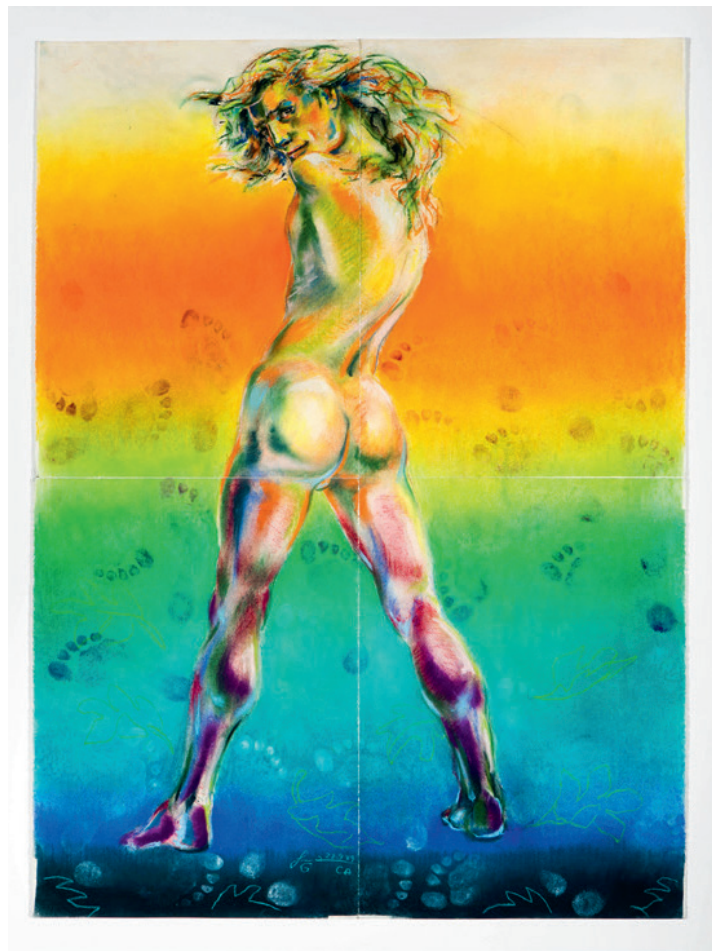
Page 26

Lorenza Böttner, Untitled, undated, pastel on paper,
137 x 170 cm, courtesy: private collection

Lorenza Böttner, Untitled, 1980,
watercolor, pen on paper, 32.4 x 23.9 cm,
courtesy: private collection

Lorenza Böttner, Untitled, 1990, pastel on paper,
154 x 115 cm, courtesy: private collection





규정했습니다. 통합 정책은 장애가 있는 신체를 보철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정상화된 신체로 형성하고 생산 공정에 영입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의학계의 담론에 반한 로렌자는 자신의 몸과 주체성과 예술 생산물을 팔 없는 화가의 정치적인 연보에 새겨 넣었습니다. 토마스 슈바이커에서 루이스 슈타인코글러로 확장된 화가의 연보에 자신을 기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렌자가 가장 자신과 동일시한 작가는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에서 작품으로 주목을 받은 에메 라팽이었습니다. 1980~90년대에 뉴욕으로 여행을 떠난 로렌자는 산드라 아론슨과 장애 예술인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장애인을 주변부의 예술인으로 규정하는 자선적이고 인류애적인 모델은 비판했습니다. 그들과 달리 로렌자는 손과 발의 관계를, 의학 포르노와 예술적 시선의 관계를 힘의 투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가 아닌 얼굴

로렌자는 도로의 길바닥을 회화와 퍼포먼스의 새로운 전시장으로 만들어냈고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피부를 캔버스로 만들어내 [사회가] 강요한 규범과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인 대화를 재작성했습니다. 로렌자의 '댄스 페인팅'과 퍼포먼스의 상당수는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시작됩니다. 발로 붓을 잡고 눈의 윤곽선을 덧그리고 불과 이마에 삼각형들을 그리거나 얼굴을 나누는 선을 긋습니다. [남성의 몸인] 그가 여성의 옷을 입는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 개념은 그가 끊임없이 얼굴을 지우고 구성하기엔 너무 좁았고 진부할 만큼 시시했습니다. 로렌자는 [그의 이야기를] 표면에 새겨 드러내기 위해 얼굴을 성, 인종, 인류와 같은 정체성의 장으로 바꾸었고 얼굴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가면이기에 다시 새롭게 그려낼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983년 카셀 예술대학을 졸업하게 된 로렌자는 그의 얼굴로 끝없는 변화를 수행하는 사진 시리즈 <페이스 아트(Face Art)>를 제작합니다. 그 시리즈에는 다양한 시공간을 암시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가면이 잇따라 드러납니다. 얼굴은 인간의 속성이 사라졌고 동물처럼 변해갔고 부족^{部族}의 표식을 연상시키는 선이 그어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클로드 카운, 유르겐 클라우트, 미셸 주르니악, 수지 레이크, 그리고 조 스펜스처럼 로렌자는 자화상을 저항의 기술로 사용해 식민적, 의학적, 감시적인 사진에 반항했습니다. 그러한 사진들은 '타인'을 규정짓고 타인을 원시적이거나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고 정상에서 일탈한 존재, 혹은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는 [체제에]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류체계에 관해서 로렌자는 반체제적인

얼굴을 구상하는 실험을 했고 끊임없는 변주는 단순한 여성 정체성 탐구 그 이상의 정체성 해체를 낳았습니다. 정치적 주체인 신체를 지우거나 이질적으로 만들고 혹은 질환으로 축소해버리는 체계를 로렌자의 얼굴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런 동시에 다원성을, 완전한 변신을, 풍부한 주체성 구조의 관계성을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조각인 신체

로렌자의 다양한 작품에서 규범의 구현과 비판이라는 이중적인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리스 조각의 규범은 완벽함, 아름다움, 가치의 이상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공공의 기표 역할을 합니다. 1980년의 다른 퍼포먼스를 보면 로렌자는 절단된 신체를 살아 숨쉬는 문화적 재료로 삼아서 '밀로의 비너스'와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모방한 조각상을 만듭니다. 로렌자가 헬레니즘 조각을 선택한 이유는 그 조각들이 가진 긴장감, 즉 훼손된 신체와 미의 기준, 유적과 규범 사이의 긴장감에 착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례로 1986년 로렌자는 뉴욕 이스트 빌리지 예술인 비공식 모임에서, 그 다음에는 헌터 칼리지 자선 음악회에서, 자신의 몸이 '밀로의 비너스'로 변신할 때까지 얇은 석고 반죽을 발랐습니다. 칠레 작가 페드로 레메벨에 의하면 로렌자의 퍼포먼스는 양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훼손된 흔적을 헬레니즘식 수술대에 옮겨 주었습니다. 로렌자는 팔이 없는 조각이 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아프로디테를 구현하고자 했기에 그의 토르소에 둥근 가슴을 형성하고 그리스 여신처럼 머리카락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성의 상체와 배꼽 주변 얇은 체모의 불협화음은 튜닉에 숨겨지기전까지 젠더의 긴장감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한편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로렌조의 석화^{石化}가 아니라 조각을 파괴하여 사회적으로 정상화된 정형외과적 주형을 깨버린 과정 자체입니다. 작가 그 자체가 조각으로 변신하여 규범을 구현해냈던 그 순간, 백인과 시스 젠더 그리고 이성애자의 신체를 사회적 정상으로 규범화하던 예술의 역할에 비판이 가해졌고 규범의 조각에 부식이 일어났습니다. 이동 가능한 발판 위에 선 로렌자는 비너스가 되어 대중의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무대 뒤편에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조각은 눈을 뜨고 궁금한 눈빛으로 관객들을 바라보며 질문합니다. "예술이 살아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리고 로렌자는 발판에서 내려와 관객 앞에서 춤을 춥니다. 공공장소의 권력과 시선 간의 관계가 재정비되고 짜여지는 순간입니다. 기능적으로 다양한 몸에게 강요된 수동성과 침묵에 대항하는, 춤과 목소리는 행동의 동력을 끌어올리도록 복돋우는 사회적 기술이었습니다.

페트라 그리고 정상화를 향한 올림픽

1980년대에 처음 바르셀로나에 오게 된 로렌자는 그곳에서 수많은 도시 예술가와 교류합니다. 그렇게 로렌자는 1992년 하비에르 마리스칼이 디자인한 패럴림픽 게임 마스코트 페트라가 됩니다.

페트라를 구현하면서 로렌자는 규율의 잣대로 재현되어 대상화되는 것과 반체제적 퍼포먼스로 저항하는 것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를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로렌자의 기능적으로 다양한 신체는 패럴림픽의 방향성과 일치했지만 역설적으로 페트라의 거대한 변장에 가려 보이지않게 되었습니다. 페트라는 로렌자를 불구와 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작가의 몸과 얼굴을 감춘 마스코트 페트라는 [작가들] 어린애 취급하고 주체성을 탈취했습니다. 페트라는 1990년대 포스트모던의 다양성 포용 정책과 텔레비전의 자선 방송, 장애 산업에서 성공의 상징이었으며 [이런 환경에서는] 기능적 다양성을 갖춘 신체들이 사회에 속하는 대가로 사회에 굴복했습니다. 개인에 [한정된] 영웅 서사, 보철 기기를 쓴 재활, 그리고 운동면에서의 성취는 규범 바깥의 신체를 정치적 종속의 자리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유럽 전역과 미국을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퍼포먼스를 해왔던 로렌자는 에이즈에 감염된 채 독일에 돌아왔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몇 달은 고도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성전환 과정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육체가 쇠약해져 이제는 가족에게 신체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 로렌자는 짧은 머리에 남자의 옷을 입고 다시 남성화 되었으며 생애 처음으로 대부분의 정치와 예술 수단을 잃어버렸습니다. 1994년 1월 34세의 나이에 로렌자는 에이즈 합병증으로 독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헤게모니를, 그리고 신체를 정상인 것과 병적인 것으로 나누는 가시성의 틀을 비판한 선구자적 비평가 로렌자 뵈트너의 작품은 이제 21세기의 심상을 떠올릴 때 없어서 안될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렌자 뵈트너 <정상성에 바치는 진혼곡(Requiem to the Norm)>
전시 안내에서 발췌 및 개작. (스페인 바르셀로나 La Virreina Centre de la imatge와 독일 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Stuttgart, 2018-19)

1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탈리도마이드는 1957년 10월에 서독에서 콘테르간(contergan)이라는 제품명으로 진정제, 수면제로 시판되었다. 특히 입덧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 많은 임신부가 사용하였으나, 이 약을 복용한 산모에게서 사지가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이 태어났고 그 원인이 이 약 때문임이 밝혀졌으며 1962년 이후 판매가 금지되었다.

2 의학 포르노그래피(phalmeno-pornographic): 이 용어는 본문의 저자 폴 프레스시아도의 저서 『테스토 정키』에서 처음 등장했다. 저자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성행하기 시작한 제약산업의 자본주의와 생명정치는 인간으로 하여금 약물(비아그라, 여성 피임약 등)을 선택하고 의존하게 만들어 사회의 정상성 규범에 맞는 인간으로 개조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3 룸펜프로레타리아(lumpenproletariat): 노동력상실자, 선천성불구자, 전상자, 전쟁고아, 전재가족 등 자본주의사회의 최하층에 침전하여 사회복지적 부조를 받지 않고는 스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피구출적인 빈민을 말한다. 누더기를 걸친 사람, 걸레, 폐물 등을 뜻하는 것인 룸펜인데 이들은 장기적인 실업으로 노동의욕상실과 이에 따른 퇴폐적인 생활태도, 불량적인 생업을 가지고 대도시에서 이른바 슬럼(slum)을 형성한다. 프리츠는 삼쌍둥이나 신체 일부가 없는 사람, 이민족 등을 전시하고 그들의 신체적 특성으로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으로 실제 19세기 유럽에서 자행되던 쇼를 일컫는다.

4 트랜스베스티즘: 남성이 여성의, 혹은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 행동을 변태적으로 일컫는 표현. 복장도착증이나 성도착증이라고도 부른다.

5 시스젠더: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트랜스젠더와 반대되는 개념.

“휠체어를 극장 좌석과 바꾸다”

1974년 새로운 장애인 인권 운동의 서막

볼커 쇤비제

오스트리아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기표현 운동은 그 역사가 최소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신체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한 “구” 장애인 인권 운동은 전쟁 피해자 운동, 업무 관련 장애인 운동,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름 붙인 “불구자들” 운동과 같이 다양한 운동으로 분리되었다. (복지 수혜 자격이 있지만 사회적 혜택과 연금 신고 권한이 없는 장애인 <http://bidok.uibk.ac.at/bibliothek/archiv/krueppel.html>) “일하라 동정하지 말고 (Arbeit nicht Mitleid)”라는 슬로건 아래 “불구”들은 노동 운동의 목표를 따라 일자리와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해 싸웠다.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상황 하에서 이 운동의 성과는 미미했으며 제1공화국의 붕괴 이후에 국가 사회주의자의 우생학 정책과 말살 정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적 충격과 이동의 틈에 갇힌 이러한 장애인 단체들은 노동과 복지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정책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 기적”과 커져가는 냉전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제도화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어났다. 재활 및 제도적 개별화(특수 교육 학교, 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 거주형 보호 시설)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영역의 성장으로 인식되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형성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단체들은 반체제적 접근이 아닌 온건한 요구만을 제시하면서 사회 복지 제도에 감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사회 풍토의 측면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단계의 막바지이자 전환기였던 1968년에는 저항의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사회 운동을 통해 사회적 권리와 인정 및 참여의 권리 모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어느 시점에 들어 “1968년”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전환점과 연결된 각각의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부분 훗날 돌이켜 보았을 때야 명백히 들어났다. 그러한 사건 중 하나는 호크하임가쎄에 부속 학교가 함께 있는 신체적, 감각적 장애인을 위한 무역 학교인 포러스가쎄 비즈니스 스쿨 (Handelsschule Phorusgasse)의 1974년 3월 학생 시위이다. 이 시위는 안전상의 이유로 연극과 콘서트 입장을 금지 당한 후 비엔나 링 로드를 따라 일어났다. 이 시위로 당시 비엔나의 그라츠 시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쿠리에(KURIER) 및 크로네(KRONE)와 같은 대형 일간지들은 학생들에 의해 진행된 흔치 않은 이 활동에 대해 보도하였다. 그들은 “평등의 권리”, “휠체어를 극장 좌석으로!”와 같은 슬로건을 앞세운 시위 포스터의 사진들을 게재하였다.

동시대를 보낸 증인인 테레지아 하이들마이어(Theresia Haidlmayr)와의 인터뷰에서 1974년 3월 시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액서니즘이었죠... 콘서트홀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콘서트홀이었어요. 당시의 음악 밴드였던 “미들 오브 더 로드 (Middle of the Road)”를 보러요. 그런데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때 처음 행동을 취한 건 잭 그란스키. 아직도 그 일이 기억나요. 잭 그란스키는 맥싱스트리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와 안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린 13번 [구역]에 있는 몬테쿠콜리플라츠에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들여보내 주지 않았는데 잭 그란스키는 우리가 못 들어 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최대 규모의 시위를 하며 링 로드를 막았어요. 그리고 링 로드를 따라 계속 이동했죠. 그 당시 그라츠 시장의 집무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무실이 가득 채워 버렸어요. 아주 많은 휠체어들이 있었으니 당연했겠죠.” (장애인 인권 운동의 역사에 대한 기사에서 테레지아 하이들마이어와의 인터뷰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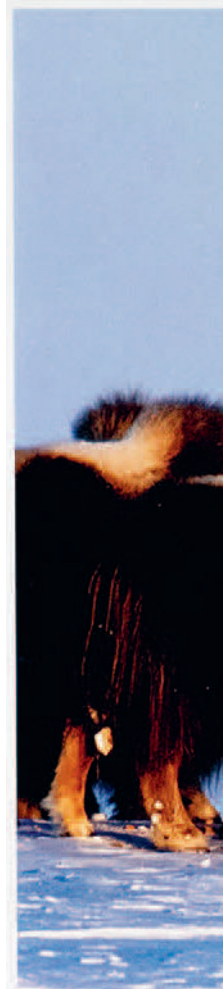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자결권에 중점을 둔
다원적 운동의 한 일부였으며
여전히 그렇게 남아 있다.**



[사진] 게르하르트 추그만(Gerhard Zugmann), 휠체어에 탄 채 시위하는 모습, 쿠리에(Kurier), 1974, 오스트리아 국립 도서관 (번)

테레지아 하이들마이어에게 액서니즘은 처음엔 명백하게 “새로운” 사회 운동이었다. 그 목표는 오스트리아의 장애인들이 분노에 찬 담화를 상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기존에 확립된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었다. 방법과 감정적 측면으로 볼 때 이러한 행동은 현시대 학생들의 기후 파업을 연상시킨다. 돌이켜보면, 1974년 3월에 있었던 학생들의 행동은 국제적으로는 “자립생활 운동”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민중 운동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있는 장애 여성과 남성의 첫 항쟁이 1970년대 초에 있었다.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자결권(성별, 민족성, 사회 계층, 성적 성향, 생태학, 평화 등의 주제와 관련됨)에 중점을 둔 다원적 운동의 일부였으며 여전히 그렇게 남아 있다. “구” 사회 운동(“노동 운동” 및 “반식민지 해방 운동”) 그리고 “신” 사회 운동과 유사한 운동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이 늦었지만 역사의 재조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출처 장애인 인권 운동 역사의 분석 및 기록,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다.
<http://bidok.uibk.ac.at/projekte/behindertenbewegung/>.







Sunaura Taylor, *Wildlife*, 2014,
oil paint on wildlife photography book,
approx. 30.5 × 30.5 × 5 cm, excerpts,
courtesy: the artist

비건, 괴짜, 그리고 동물: 새로운 식탁 사고를 위하여

수나우라 테일러

2010년 9월,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예술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육식 섭취의 윤리적인 측면에 관한 토론에서 비건주의자를 대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파트너인 데이비드와 함께 제시간에 행사장에 도착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진행 중인 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40여 분 정도를 아래층에서 둘이서만 앉아 있었다. 그 층에는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요리사 몇 명만 있었는데, 저녁 메뉴는 풀을 먹인 소고기 아니면 치즈 라비올리였다.

데이비드와 나는 행사 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언질을 받긴 했지만,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 점점 불편해졌다. 내 안의 장애인 인권 활동가는 내가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나의 무해한 존재는 어쩐지 행사와 아트센터 자체에 내재된 차별을 목인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나의 존재가 “괜찮아, 내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지. 어쨌든 내 장애는 내 문제인걸”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데이비드와 내가 느낀 소외감은 음식이 나오자 곧 고조되었다. 행사장에 있는 유일한 비건 두 명을 위해 요리사들이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서 제공했고, 대부분이 구운 야채였다. 나는 곧 이 방을 가득 채운 잡식인들에게 내가 비건이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했던 참이고, 나는 이 음식이 어떻게 읽힐지 날카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다르고 낯선, 셰프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안겨주지만 다른 요리에 비해 맛있지도 않은 음식. 나는 그 방에서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느끼며 토론에 참여했다. 한눈에 보기에라도 나 혼자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접시에 동물성 제품이 없는 사람은 데이비드를 제외하고는 내가 유일했기 때문이었다.

마이클 폴란은 『잡식동물 분투기: 리얼 푸드를 찾아서(The Omnivore's Dilemma)』에서 채식주의자가 되어 가장 곤란했던 점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미묘한 방식”이라고 언급한다.¹ 음식을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윤리적

신념을 위해 얼마만큼의 사회적 고립감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는 데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되는 “어려움”을 다룬 잡지와 신문 속 수많은 기사들은 채식주의자가 되면 직면하게 될 사회적 낙인에 초점을 맞춘다. 눈을 굴리거나, 놀리거나,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등 말이다. 조너선 사프런 포어는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변과 맞춰 행동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고 한다.² 이러한 기사들이 채식주의자들의 경험을 어떻게 주변화하는지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개인이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되기로 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저소득층이나 대개 유색인종이 사는 지역 사람들이 겪은 식품 사막이라는 현실과 야채와 과일이 포함된 식단보다는 동물성 및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려하는 정부 등이 그 예시이다.³ 그러나, 대다수 기사는 이러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짚기 보다는 육류 및 동물성 제품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오는 어려움을 한 개인의 정상성이나 수용성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치부해버린다.

현대 미국 문화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비정상적이라고 그려낸다. 동물 활동가는 지나치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치부되어 인간 혐오자, 심지어 테러리스트라고도 묘사되며, 채식주의자와 비건은 음식에 대해 까다롭고, 히스테릭하며, 감성에 도취하여 있거나, 신경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진다. 심지어 채식 음식조차도 “별종”으로 치부되는데, 육류 대체품들은 실험이나 과학의 일환으로 다뤄진다.

많은 동물성 단백질 대체품들은 전통적인 미국 음식이 아니기에, 이러한 식품을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무시하는 것은 미국인의 정체성(“진짜” 미국인은 진짜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을 공고히 하고 다른 이들을 미국인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동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의 비정상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 다른 아닌 인기 있는 비건 팟캐스트이자 책 제목인 “비건 괴짜(Vegan Freaks)”일 것이다. 이 제목은 얼마나 많은 비건이 주류 문화가 자신들을 이렇게 괴짜로 바라본다고 느끼는지 보여준다.⁴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작가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가 비건 혹은 채식주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깎보는 듯한 어조로 불리는 채식주의자 혹은 비건의 삶을 “기이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데”에 일조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동물을 아끼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은 일이다. 다이앤 비어스는 자신의 저서 『학대 방지를 위해: 미국 동물 권리 보호 운동의 역사와 유산(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he History and Legacy of Animal Rights Activism in the United States)』에서 “19세기 후반의 몇몇 의사들은 그러한 기이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진단 가능한 정신 질환을 만들어냈다. 슬프게도, 그들은 이 갈 곳 잃은 영혼들이 ‘주필사이코시스(zoophilipsychosis)’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다.⁴ 비어스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 주필사이코시스(동물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질환)는 “특히 질병에 취약한” 여성이 진단받을 확률이 높았다.⁵ 영국과 미국의 초기 동물 권리 옹호 운동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여성과 인간이 아닌 동물 모두에 대한 통제를 굳건히 하는 데 이용되었다.

장애와 장애인 역시 대부분 이러한 담론에서 배제되었고, 에이블리즘 역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다. 장애인 공동체는 동물 권리 보호 공동체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일부 지적 장애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연구를 한 철학자 피터 싱어와의 계속된 논쟁이 그러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⁶ 그러나 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 운동이 건강과 체력에 가진 집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교육과 운동 행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애인과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은 동물 복지와 지속가능성 운동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 앉아 토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내 몸과 음식 선택 모두에 대해 괴짜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마이클 폴란 등 “식탁 사교”, 즉 음식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연결과 유대감을 말하는 수많은 작가들에 대해 생각해봤다. 폴란은 채식주의자라면 이러한 유대감이 위협받는다 고 했다. 내가 만약 손님들이 먹은 거대한 수소를 일부 먹었다면, 내가 더 소속감을 느꼈을까? 폴란은 채식주의자가 되려는 그의 시도에 대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야 했고, 나는 이게 불편했다. 내가 선택한 제한적인 음식이 손님과 집주인의 기본적인 관계를 망쳐냈다”고 언급한다.⁷

폴란은 그가 이제 “배려”받아야 해서 “불편”하다고 한다.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가 가진 특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적 편안함을 깨뜨리고 배려를 요청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늘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다. 내가 들려서 옮겨져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가 가고 싶어 하는 계단이 있는 레스토랑을 가야 할까? “동물처럼” 먹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포크를 손에 들고 먹어야 하나, 아니면 포크를 입에 물고 먹어야 하나, 그도 아니면 포크 없이 먹어야 할까? 우리가 토론에 초대받은 이 공간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특권과 에이블리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까? 많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저녁 식사에 초대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은 식사 자리에서 어떠한 고상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폴란은 애초에 모두가 식사에 초대받는다 고 생각했다. 나의 발표를 들어줄 청중들을 둘러보면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해봤다. 장애, 인종, 성별, 혹은 낮은 소득 때문에 동물 윤리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에서 지워진 사람들 말이다. 사프란 포어는 자신의 저서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Eating Animals)』에서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는가?”⁸

토론은 많은 면에서 비건과 인도주의적 육류 섭취 옹호론자 간의 대화와 비슷했다. 우리는 비거니즘과 지속 가능한 잡식주의가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비거니즘이 “건강한”식단인가에 관해서 토론했고,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도살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헤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공장식 축산 농장의 잔혹함에 열정적으로 동의했고, 동물들이 종종 복잡한 감정, 능력, 관계를 가지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존재에 대해 자각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인도주의적으로 동물을 죽이고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을 때, 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으며, 그러한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종차별주의 적일 뿐만 아니라 에이블리즘적이라고 반박했다.

토론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이미 동물 문제와 장애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리라 결정 내렸었다. 하지만 그 접근하기 힘든 공간에 있다 보니, 반드시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함을 느꼈다. 나는 장애와 동물 문제에 대해서 내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대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내가 경험한 소외가 고려되기를 희망하며, 내가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장애의 모델을 대변해야 함을 느꼈다. 토론 내내 나는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장애학 연구자로서 나의 시각이 동물에 대한 내 관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장애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동물 윤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이야기했다. 권리와 자율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우려뿐만 아니라 정상성과 천성, 가치와 효율성,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에 대한 질문이 이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신체적으로 자율적이지 않지만, 연약하고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 혹은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자연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이 어떻게 장애인과 동물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했다. 인간을 위해 매년 죽임을 당하는 수백억 마리의 동물들 중 다수는 말 그대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록 만들어진다. 공장식 농장의 가축들은 비좁고, 더럽고, 자연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서 장애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육되고 신체에 극단적인 해를 끼칠 정도로 폭력적으로 조작되어, 유방은 젖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우유를 생산하게 되고, 칠면조는 자신의 거대한 가슴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되며, 닭은 부리가 절단되어 먹이조차 쉽게 먹을 수 없게 된다. 심지어 내가 가진 질병인 관절 구축증은 비프 매거진(Beef Magazine)의 2008년 12월호에 실릴 정도로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는 지나치게 자주 발견된다.⁹

나는 동물들이 에이블리즘적 특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지도 얘기했다.

...자연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이 장애인과 동물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동물이 장애인과 같은 이유로 열등하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들로 여겨지는지. 장애인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다른 존재로 비춰진다. 자유로운 신체라는 이상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이상은 동물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기준이며,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잔혹함을 정당화한다. 에이블리즘을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고 특권을 누리게 하는 비장애 신체는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이 아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장애학에 대해 내가 나눌 수 있는 내용을 나누려고 했는데, 장애학이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을 공유하고자 했다. 장애학 학자들은 우리에게 존엄성과 가치를 주는 것이 우리의 지능, 이성, 민첩성, 신체적 독립성, 그리고 직립 보행만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의 삶은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사지 마비, 자폐증, 또는 나처럼 관절 구축증을 앓고 있어도 살아갈 가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하다고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이성이나 신체적 독립 등 중요한 능력이 결여된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주장할 때, 이러한 주장이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했다.

토론이 끝나고, 나는 패배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동물 권리 보호가 아니라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나는 내가 대변했던 장애 정치가 잘못 이해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사람들이 인간이자 비장애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특권을 되돌아보는 대신, 내가 나의 장애를 이용해 동물권을 옹호한다고 오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 먼저 나에게 말을 건 사람은 자신을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로 소개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나에게 감명받은 듯했고 (나를 특별한 능력으로 장애를 극복한 슈퍼 장애인으로 보는 것 같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영혼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당신의 명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라며, “자신을 동물에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어떤 시점에서는 그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싱어와 비슷한 부류가 내세우는 동물 권리 담론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철학자 리치아 칼슨이 “우리가 철학에서 이 개념이 잘못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과 현재 철학에서 지적 장애가 얼마나 소외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담론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배정된 역할을 비판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서술했듯이, 나는 스스로를 동물에 비유하고자 함이 아니었고, 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공통된 억압을 비교하려고 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나는 그녀에게 장애인들과 비인간 동물들은 종종 비슷한 억압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동물에 비유하는 것이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동물일 뿐이니까.

그녀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상황을 동물의 상황과 비교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서로 무관하다고도 말했다. 그녀의 아이는 동물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만들어버린 이 연결고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아마 같은 말을 건장한 사람이 했으면 화를 냈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나를 가엾게 여기는 것 같았는데, 마치 내가 장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동물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듯이 생각했다.

내가 사회적 예절을 지켜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고려하는 대신, 배려를 요청했다라면, 장애인으로서 나의 자신감은 다르게 비쳤을까? 만약 내가, 행사장에 접근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 행사에 도착했다면, 동물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조차 장애에 대한 애정이 담긴 제스처로 인식될 정도로 내 신체에 대한 나의 자존감이 분명해 보였을까? 내 행동이 행사에 방해된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아마 편의를 요구함으로써 다른 풍경의 식탁 사고를 주장했을 것이다. 그날 밤 그 공간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나의 언어를 조합했고, 동물에 대한 억압과 장애에 대한 억압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어 지워지는 다양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 거대한 수소가 저녁 메뉴로 올라가고 장애인은 아래층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 기사는 페미니스트 프레스가 2017년에 발간한

〈짐을 끄는 짐승들: 동물해방과 장애해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모든 권리 보유.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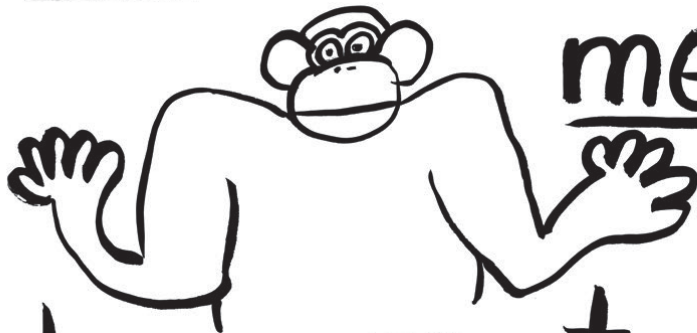
- 1 Michael Pollan,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New York: Penguin, 2006), p. 313.
- 2 Jonathan Safran Foer, *Eating Animals* (New York: Little, Brown, 2010), p. 32.
- 3 Bob Torres and Jenna Torres, *Vegan Freak: Being Vegan in a Non-Vegan World* (Oakland, CA: PM Press, 2010).
- 4 Diane L. Beers,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he History and Legacy of Animal Rights A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thens, Ohio: Swallow Press, 2006), p. 16.
- 5 Ibid.
- 6 Licia Carlson and Eva Feder Kittay, eds., *Cognitive Disability and Its Challenge to Moral Philosophy* (Malden, MA: Wiley-Blackwell, 2010).
- 7 Pollan, *Omnivore's Dilemma*, p. 314.
- 8 Safran Foer, *Eating Animals*, p. 55.
- 9 W. Ishmael, "Dealing with Curly Calf," *Beef Magazine*, 2008, <http://beefmagazine.com/genetics/1201-curly-calf-issue>.
- 10 Licia Carlson, "Philosophers of Intellectual Disability: A Taxonomy," in Carlson and Kittay, *Cognitive Disability*, p. 318.

Being a Gorilla



as if there never
existed a Gorilla
before...

Do you love
me?



Love me too?

I quit to walk in
circles

when
out



I found

that circling • around myself
is getting me to the same point.

투쟁 발산하기

겐토프트 병원 저널 발췌문, 2019년 봄

아름 아콕센

4일차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 8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아침 8시 45분에 대부분의 환자와 당직 중인 직원들이 있는 나의 첫 번째 아침 모임에 갔다. 때때로 너무 아파서 동참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 모두가 참석한다. 의사들은 그곳에 절대 오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말하고 전에 이 병동에 와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호다가 그날의 담당 간호사라는 말을 들었다. 환자 중 한 명인 유수프는 휴게실에 있는 폴더에서 찾은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 노래의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덴마크 노래였다. 노래를 부른 사람은 유수프 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약간 흥얼거렸다. 마치 그가 계속 연주하면서 그 노래를 작곡한 것처럼 들렸다. 우리는 회의를 다른 노래인 "Det er i dag et vejr"로 마무리했는데, 이 노래는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반응이 조금 더 좋았다.

혈액 샘플과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사실 이런 일이 아침 식사 전에 일어났는지 후에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정신과장인 엔스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지만, 호다는 "그는 매우 바쁘다"며 아마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타민 치료나 유사한 "양성" 약물에 대한 어떤 실험도 없었는지 물어보기 위해 간신히 그의 사무실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는 내게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는 손을 흔들어 나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친구이자 공동 작업자인 미켈 볼트에게 몇 개의 문자 메시지를 더 보냈다. 그는 금요일까지 끝내야 할 아스게르 요른에 대한 수정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볼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 이 일을 마치는 대신 천 유로를 받기로 되어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는 했다. 나는 Fodboldenglen이라는 책을 조금 더 읽었는데, 곧 끝이 보인다. 형편없는 책이다. 부서 책장에서 아무렇게나 골랐다. 점심은 쿠스쿠스가 들어간 채식 미트볼과 소스인지도 모르겠는 독특한 녹색 드레싱이었다. 솔직히 나는 내가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 점심 식사 후에 천장을 보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가 문을 열거나 간호사나 보조사가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보여도 불안하지만 나는 평화롭고 조용하게 식물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싱글 룸에 있다. 그들은 가끔 어떤 소식을 가져오거나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한 늦은 오후 간호학과 학생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휴게실에 케이크와 어떤 "활동"이 있다고 말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 나는 좋다고 말했다.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방에 있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케이크에 살짝 유혹당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종류의 사회 활동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작은 악마가 존재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 작은 악마는 아마도 인지적 원리에 따른 수년간의 치료의 결과일 것이다. 이 생각은 나에게 그러한 사회적 활동이 긍정적이고 건강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잠시 후 나는 거대한 텔레비전이 뉴스를 송출하고 있는 병동의 휴게실로 갔다.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바보 같은 정치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항상 낙담스러운 일이다. 때때로 애니멀 플래닛이나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널을 바꾸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가 휴게실에 갔을 때 TV는 꺼져 있었고, Nørrebro에서 온 실물보다 큰 남자 (오늘 아침에 만난) 유수프는 소수의 간호사들과 몇몇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유수는 사람들에게 이슬람 국가에 대해 말하면서, 이 단체의 다양한 분파들의 이름을 설명했다. ISIS가 있고, Daesh가 있고, ISIL이 있다... 간호사와 그의 주위에 있는 어린 학생들은 초조하게 웃었고, 그는 계속해서 실제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ISIL은 소규모 지휘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ISIS는... 그리고 나서 마치 주위의 초조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들 중 어느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고,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중단했다. 나는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앉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락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었다. 그림 그리기 활동은 크레용으로 종이에 복사된 만다라 무늬를 채우는 것이었다. 내 방에 살짝 얼굴을 보였던 아이다는 내게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조금 흔들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내가 "창의적"인지 물었다. 내가 고개를 조금 끄덕이자 그녀는 다시 웃었다.

거기서 나오기 위해, 나는 담당 간호사에게 산책을 갈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녀는 산책을 얼마나 할지 물었고, 나는 한 시간이라고 답했다. 나는 몇 년 전에 겐토프트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고 당시 겐토프트 동네를 걸어 다닌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길지 조금 궁금했다. 나는 보통 편집증적인 장소 감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세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부자의 사막 한 가운데에서, 나는 갑자기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병원은 주거 시설이 밀집한 동네 중앙에 약간 회전하는 정사각형처럼 배치되어 있다. 내가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나는 아마도 "병 때문"일 것이라는 표준적인 설명으로 이 걱정을 쓸어버렸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내가 아닌, 내 안에 집을 만들어 놓은 것, 또는 올바른 수단을 사용한다면 내 몸에 달라붙을 수 있는 무언가로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반창고를 뜯어내거나 여드름을 짜내는 것 처럼 말이다. 그 설명은 내가 이리저리 길을 따라 헤맬 때 나에게 유용하게 다가왔다. 나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무의미한 부가 싫었다. 마침내 나는 빵집인 에메리를 찾았는데, 내 여행의 첫 목표라고 생각했음에도 모른다. 출지만 햇볕이 쨍쨍해서 사람들은 다리 위에 담요를 덮고 밖에 앉아 있었다. 점점 다가가면서 빵집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할 때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아마도 주로 밖에 있는 둥근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기분을 망쳤기 때문일 것이다. 과한 헤어스타일, 대문자로 된 선글라스, 잘 단장된 백인들, 너무 부유하고 너무 매끄러운 기능성, 내가 방금 교외 거리에서 봤던 것과 비슷했다. 빌어먹을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나는 에메리를 지나 넷토 할인 슈퍼마켓에 갔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다"라는 문구로 나를 안심시키고 반기는 좋은 넷토. 필요한 게 없어서 여러 통로를 쿵쿵거리다가 테오를 위한 나무로 만든 메모리 게임을 찾았다. 집에 가면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자석 페인트를 막 사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너무 어리석고 너무 희망적이어서, 나는 페인트 통을 그대로 두었다. 나는 카모마일 차와 내 안경을 위한 물티슈를 샀다.

병동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간호사와 다른 의료 종사자들이 어울리고 있는 직원실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었다. 방 여기저기에 앉아서 아직도 그들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끔 의사가 있지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다.

저녁 6시까지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Fodboldenglen 을 더 읽었을 수도 있다.

여기 병동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서서히 고갈되는 사막에서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Jakob Jakobsen, My room at Gentofte Hospital after 53 days, 2019

19일차

여기 병동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서서히 고갈되는 사막에서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오늘 나는 내 여동생과 부모님을 볼 힘이 없어서 그들의 방문을 취소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살결이 내 옷에 닿아 신경이 곤두선 피부를 느끼고 있었다. 온몸이 떨린다. 리튬 때문이다.

오늘은 각각 다른 요일의 활동을 나타내는 색을 사용하여 주간 스케줄을 만들려고 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의 계약처럼 말이다. 나를 지켜주는 천사 중 한 명인 한나가 이것을 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며칠 전에 나에게 스케줄을 주었고, 내가 병동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작성하라고 제안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약간 혼란스러웠던 나에게 그녀는 그냥 색을 사용하라고 제안했었다. 그녀는 내가 내 방의 벽과 천장에 붙이고 있던 컬러 A4 용지에 집착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한나를

따라 직원실로 올라갔더니 한나가 접착제와 가위를 주었다. 좀 크고 뽀족한 가위였다. 내 방에 있는 책상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양한 색깔로 다른 조각들을 오려냈다. 하나는 일기에 쓰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달리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읽기 위한 것이다. 나는 모든 조각을 일정에 넣고 내가 회복할 시간을 위해 충분히 많은 하얀 공간을 남겨두었다. 내가 작은 색종이를 차트에 붙이고 싶을 때, 내 손이 너무 떨려서 조절할 수 없었다. 이 작은 감정적 동요만으로도 나는 내 손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즉시 포기했다. 어쨌든 그 스케줄은 그냥 빌어먹을 거짓말이었는데도 모른다. 그건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척 하는 게임이다. 이는 내 머릿속에 두려움과 슬픔이 뒤죽박죽 섞여있을 뿐 아니라 내가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줬다. 그 떨림은 나만의 통증 지진계와 비슷하다. 내가 감정적으로 무언가에 더 관여할수록, 떨림의 진폭은 더 커진다. 문자 메시지 작성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속도를 줄이고, 숨을 쉬고, 평온한 기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다음 다시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자살때문에 감시를 받지 않지만, 이제 서서히 약에 빠져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모든 행동이 더 서툴게 느껴진다. 약은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기능을 다 점령한다. 내가 먹는 약은 1950년대에 개발되었고, 마치 수류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방 문으로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리튬과 아미트립릴린이 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내게는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엄청난 부작용을 통해 작용한다. 떨림, 오한, 근육 경련, 이명, 소변 문제, 입 안 건조, 그리고 내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다른 모든 현상들로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다음 주에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른 약을 찾고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한 달간 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나는 내가 요양원이나 건강 유람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게임이다.

야콥 야콥센, 53일 후 겐토프트 병원 내 병실에서, 2019년

43일차

관찰하는 것만으로 내 기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느끼는 것은 혼란스럽다. 입원했을 때 나는 슬프고 무서웠다. 여러 종류의 약을 바꾸는 중에 나에게서는 상이한 감정들이 나타난다. 감정을

묘사하는 것은 매우 언어적-변증법적인 방법이다. 불안감은 내 언어 체계에 아주 늦게 포함되었다. 내 우울한 마음은 온갖 슬픔과 불안을 우울함의 무게 아래로 밀어 내렸다. 불안은 내가 저녁에 자주 마주치는 초조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칠 때 말이다. 이런 일은 실제로 내게 이렇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공포를 심화시킨다. 물론 내가 윤곽만 아는 이런 종류의 불안감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다양한 감정들을 훑어볼 수 있는 공간과 평온함이 생긴다. 이는 좋은 게 아니라, 끔찍하기만 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지원과 안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다른 환자들과 일반 직원들에게서 비롯된다. 최근 나는 쓸쓸해졌다. 나는 더 이상 특별히 슬프지 않다. 약이 내가 받는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약과 약이 미치는 여러가지 감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또한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짜증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나는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벽에 세워둔 여러가지 색의 A4 시트를 거의 다 찢어버리려고 했다. 매일 한 장씩 말이다. 그 과정에는 존재감과 즐거움이 있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쓴 게 맞나?) 내 눈은 종이 사이를 뛰어다니며 색상의 최소한의 역동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색조로 인해 시선이 한 시트에서 다른 시트로 이동하는 동안 혼선이 발생한다. 이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색깔과 그 차이를 가능하는 체조의 한 형태이다. 색상들이 만들어내는 미시적인 감정적 충동은 약간의 기쁨과 짜증이 섞이면서 시작된다. "녹색 종이는 내가 걸어놓은 곳에 맞지 않는다. 노란색 종이와 대비해 소음을 자아낸다..."

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짜증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게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다른 종이를 걸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 지금 나는 사실 내 방에 있는 색상들의 상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를 감정적으로 흔들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색 역학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 게임은 너무 간단해서 감사한 마음이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미술실의 표준 A4 사이즈의 색종이다. 그 방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솔베이는 런던에서 산 아름다운 색종이 다섯 장을 나에게 주었다. 이 종이들은 내 시스템을 약간 망가뜨리지만, 정신과 과장은 계속해서 내게 내 마음가짐이 유연해야 하고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솔베이의 종이는 천천히 색상 체계에 흡수되고 있다.

녹색 종이는 내가 걸어놓은 곳에 맞지 않는다. 노란색 종지와 대비해 소음을 자아낸다...

어제 이 새로운 적막감은 벽과 천장에 있는 모든 색상의 A4 종지의 생명을 거의 앗아갔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무관심하고 재미없게 만드는 황량함의 갈무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황량함은 분명 슬픔의 일종이지만, 속상해하는 슬픔과는 다르다.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바로 감정과 색깔을 말이다. 나는 색의 상징성을 믿지 않지만, 색깔의 역동성은 감정의 다른 톤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년 동안 나는 너무 우울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의사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언어가 사라졌었다. 이것이 아마도 내가 심리치료의 이로운 효과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가끔 나는 장난으로 마리아에게 40분 동안 심리치료에 700 크로네를 지불하지 말고 그냥 집에 앉아서 문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곤 했다. 언어와 감정은 분리된 풍경이 아니다. 언어는 감정을 형성한다. 그리고 단어를 찾는 모든 과정은 자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된다. 늙은 부르주아 앵무새인 프로이트의 생각을 빌려서 나는 언어적 표현은 제멋대로인 마음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 평생 동안, 언어는 장벽으로 느껴졌다. 나는 난독증과 일종의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을 가지고 자랐다. 그래서 나는 몇 마디 말도 없이 살 수 있었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그 경험은 마치 여러 면에서 학교와 같다, 정동(affects)의 학교 말이다. 학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내 동료 환자들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한다. 나는 색깔 게임이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웃들에게는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복도 끝 두 방에 사는 테레자는 끊임없이 방을 청소하고 정리한다. 나는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 그녀의 방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커튼 사이로 비치는 차가운 아침 불빛을 받으며 베개를 정리하며 서 있었다. 매우 조심스럽게, 덮개를 매끄럽게 하고 베개를 덮개 안에 넣었다. 베개는 전혀 편안하지 않지만 매우 아름답고 조용하다. 천장 조명은 켜지지 않았고 풍경은 마치 베르메르와 하메르세이의 작품과 같았다. 테레자는 그녀의 방을 정돈하고 장식하면서 살아남는다.

59일차

나의 퇴원 날짜가 정해졌다. 바로 5월 29일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나의 결정이었다. 별다른 부담은 없다. 나의 퇴원은 무의미한 세계로의 퇴원이다.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비커밍의 시간성

트랜스(연대기적)규범성과 상상된 호르몬 시간

조나 가드

시간이란 웃기다.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고자 글로 쓰자 마자, 시간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간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주위 어디나 있으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 시간의 규범적 인식은 우리에게 적절한 활동 지속시간, 알맞은 전기(傳記)나 삶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단계를 제공해주며 동시에 과거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나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게 해준다.

다른 여타 분야와 다르게, 규범적 구조로서 시간은 고전적 트랜스젠더 서사에서 자주 관찰되며, 성전환을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변화하는 선형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여긴다. 고전적 성전환 서사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시작점이거나 도착점으로 설정되는 선형적 시간선으로 구성된다. 에밀리 그레함이 영국 젠더 인정법(UK Gender Recognition Act)과 이 법이 영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인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러한 서사는 법적 인정이라는 틀 안에서 재생산되며 내재된다.

의료적 수단을 통한 성전환을 원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법적 인정을 원하거나 받을 수 있는 트랜스* 인들에게 자전적 행위로서 성전환 서사는 진료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선형적 성전환 서사는 예를 들어, 누군가 입거나 입지 않은 옷, 좋아하는 장난감 또는 심지어 어린 시절 친구나 짝사랑 상대의 성별 등으로 정형화된, (고정) 성별을 따르지 않는 어린시절 서사를 다뤄 시간을 통해 주관성을 다시 이해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트랜스* 주체를 만들어낸다. 이는 성전환 주체를 “언제나 존재해왔던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러한 서사는 “당신은 언제나

____라고 느껴왔습니까?”, 혹은 “언제부터 당신이 ____란 걸 알았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장된다. (법적) 인정은 “진짜”이자 “진정”한 성별은 영속적이며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명한다. 적어도 진료실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성전환 서사는 아직 오지 않은 “다른” 성별이 되어있으리라 가정하, 바람직한 미래의 도래 역시 보여준다. 이로써 과거를 서술하는 일은 미래가 도래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고로 트랜스*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진보와 미래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영속성이라는 개념에도 달려있다. 이러한 서사는 나타샤 세이무어가 주장하였듯 트랜스* 경험의 적시성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시간 구조 속에서 성전환을 보여준다. 트랜스* 정체성과 구현은 성전환 서사의 시간적 구조화를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는 것 같다. 나타샤 세이무어를 인용하자면 호르몬 대체요법, 수술 및 법의학적 복잡성 내 인식은 “트랜스젠더 서사를 규범적 미래라는 환상에 더하는 제한적인 목적론적 과정 하에서 주어지거나 부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성전환 서사의 시간적 구조화는 우선 법의학적 복잡성을 통해 인지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국가의 규범적 시간성에 흡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엘리자베스 프리먼은 이 현상을 “발가벗은 육신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구현”으로 조직하거나 구속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인 “연대기적 규범성”으로 칭하였다. 연대기적 규범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프리먼은 시간이 우리의 신체에 주입되어 시간을 신체적 요소로 보이게 함과 동시에 개인 신체의 최대 생산성을 일구기 위해 체계화하는 방식에 우리가 주목하게 만든다. 연대기적 규범성은 성전환 규범성의 핵심 요소로, 트랜스*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적 형태를 만들어낸다. 달리 말하자면, 연대기적 규범성은 트랜스* 주체들을 국가가 인지하고 포용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시간은 규범성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생명정치적 힘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프리먼의 말을 빌리자면 시간은 “연대기적 생명정치”의 기술이다. 프리먼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연대기적 생명정치는 공유된 역사 서사 뿐만 아니라, 일체화 및 탄생, 결혼, 출산, 부의 축적 및 죽음으로 표현되는 “국가가 지원하는 시간선 속에서만 읽을 수 있는” “개인사”를 통하여 국가가 국가 소속감 영향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일컫는다. 성전환은 점차 더 이러한 “국가가 지원하는 시간선”을 통해 지배되며 병합되고 있다. 이 지배적 성전환 서사 내에서, 합성 성호르몬은 진행과 선형성이란 관념을 복돋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트랜스 연대기적 규범 서사에서, 의학적 개입, 특히 호르몬이 이러한 과거를 뒤집거나

신체가 다르게 발달하도록 만든다고 여겨진다. 혹은 사춘기인 경우에는, 성전환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함으로써 성전환 주체들을 규범적 시간성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받는 영향을 멈추게 하는 호르몬 억제제를 준다.

예를 들어, 로라 호락은 유튜브 성전환 영상을 분석하여 그녀가 “호르몬 시기”라 지칭한 시간성에 따라 호르몬이 작용하는 방식을 탁월하게 입증해낸다. 그녀는 성전환 영상은 호르몬 대체 치료의 첫날을 기독교적 시간 관념에서 시간 혹은 심지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과 비견되는 시작점으로 정한다고 주장한다. 호락의 이해에 따르면, 호르몬은 오직 소급적으로만 달성되었다고 비춰지는 미래 구현을 보여주는 선형적, 발전적, 목적론적이며 심지어 유토피아적 시간성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바로 그 기술이 다르게 비춰지는 신체에 대하여 다소 덜 유토피아적으로 보이는 정반대의 시간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호르몬으로 인한 시간성이 규범적 성전환 서사 내에서 해방주의적으로 여겨지는 반면, 이는 “시간을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신체, 예를 들어 장애를 가졌거나 간성이라 간주되는 신체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증상의 발현을 막거나 신체를 인종화된 서구의 이분법적 성별과 이에 따르는 규범적 시간성에 흡수시키기 위해 너무나도 자주 호르몬이 투여되었다. 이 두 가지 예시 모두에서, 성별 측면에서 명확하며 장애는 설 자리가 없는, “더 나은 미래”라는 지배적 신념 및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호르몬에게 부여된 권력과 관련하여 폭력은 합법화되었다. 더 넓은 역사적이자 담론적인 맥락에서 비춰본다면, 성전환 영상은 다른 신체들은 비참한 “발달 오류” 혹은 다소 인간답지 않은 상태에 “갇혀” 있는 반면, 특정 신체들은 진취적이며 미래를 향하는, 호르몬이 일궈낸 더 거대한 문화적 성취의 일부로 비춰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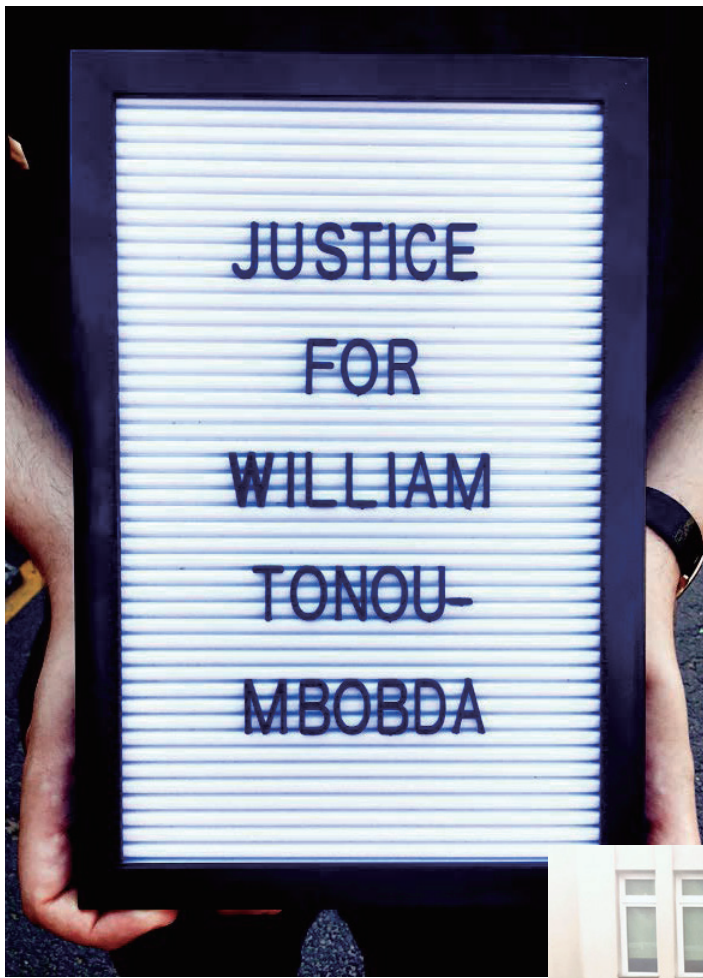
이른바 “성호르몬”이라 하는 것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가 국수주의적, 식민주의적이자 자본주의적 시도뿐만 아니라 인종주의적, 이성애-규범적 및 장애인 차별주의자적 토대와 얽혀 있음을 밝혀내 보았다. “호르몬”이란 용어는 1905년에 처음 고안되었으며,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몇몇 유럽 연구자들이 소위 “성호르몬”이라는 것을 최초로 분리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이 성호르몬 연구의 “황금기”에, 성호르몬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본질을 이루었다. 당시 과학적이자 널리

퍼졌던 착각에 따르면, 호르몬은 “잃어버린 남성성”(특히 세계 1차 대전 이후)을 되살리고 모호한 성적체성, 동성애 및 장애를 치료함으로써 이성애를 회복시키며 회춘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여겨졌다. 요컨대, 호르몬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농장, 경찰서, 정신병동 및 산부인과에서 수집된 엄청난 양의 동물 및 인간 소변이 유럽 전역에서 밀거래되었다. 수많은 난소와 정소가 유럽의 도살장에서 수집되거나 식민지에서 천연자원으로서 대규모 수렵을 통해 얻어졌고, 정신병동과 식민지에서 임상실험이 자행되었다.

호르몬이 시간성을 변화, 강화 또는 뒤흔들어, 신체를 가상의 선형적 시간선 위아래로 움직여 진보와 미래의 연대기적 규범성이라는 개념 안 또는 바깥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간주됨에 따라, 시간이라는 발상은 호르몬 본자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호르몬이 가진 연대기적 생명과학의 힘은 저항적 시간성을 일으키고, 성별과 신체적 구조가 식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시간선 바깥에 자리잡은 미래를 꿈꿀 가능성과 함께 한다.

줄리안 카터가 주장했듯이, 만약 “성전환이 시간에 주름을 잡음으로써 우리의 관계 역량을 변화시킨다면,” “시간과 시간성에 대한 규범적 개념 비판을 우리의 권력에 대한 비판에 포함시켰을 때 어떤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나타날 것인가? 역사적 정의와 저항적인 연대기적 정치라는 개념에 관여하는 정치는 어떤 형태일 것인가? 우리가 선행성, 발달 및 진보라는 개념을 해체하였을 때 어떤 형태의 집단성, 연대 및 공동체 소속이 나타날 것인가? 달리 말하자면, 혁명은 시간적인 것인가? 이는 필시 교차적일 것이다.”



Disability and Mad Pride Parade Berlin, 2019

파충류가 내 습진을 먹어버릴 순 없을까?

사스키아 카펜버거가 C.R.E.M.E 공동체의 피트를 인터뷰한 내용

당신의 공동체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2015년 봄 친구 다섯명이 습진을 앓는 이들에게 감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만남은 씨알이엠이(C.R.E.M.E) 공동체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C.R.E.M.E의 약자는 파충류가 내 습진을 먹어버릴 순 없을까(Can't Reptiles Eat My Eczema?)에서 따왔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결정적인 요인은 제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저희는 대체요법을 위해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전통적 의약품은 한계가 있으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습진을) 앓는 이들과, 이들이 아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그런 네트워크는 생겨나지 않았죠.

당신이 공동체에서 한 작업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는 그 어떤 SNS도 하지 않습니다. C.R.E.M.E에 관한 모든 정보는 입소문과 전단지, 아니면 이에 관해 페이스북에 올린 친구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습진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습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병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통적인 의학적 진단과 반대되게, 저는 습진(아토피성 피부염)을 피부병이 아니라, 피부 위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상태, 스트레스, 기후 및 환경, 식단, 체질이나 유전적 성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습진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습진의 주요한 특징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축축하거나 피부가 부슬부슬 떨어지는 습진, 몸 여러 부위의 염증이며 이는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습진의 영향으로는 수면 부족, 태선화(피부가 거칠어지는 현상), 바이러스성/병원균성 감염, 우울증, 백내장과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서구” 의학의 “핵심”적인 습진 치료법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인데, 이는 습진을 치료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습진 치료에는 코르티손, 면역억제제, 항생제, 자외선 조사 등등이 사용됩니다. TCM, 아유르베다, 동종요법 같은 타 의학 체계에서는 신체를 전체론적 방식으로 접근하며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습진의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제 입장에서 코르티손을 몸에 주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가끔 습진이 악화되면, 이는 제 온몸을 집어삼킵니다. 즉 이를 제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피부를 긁는 건 결국 스스로에게 더 상처를 입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습진을 앓지 않을 때는, 가끔 제가 만성질환을 앓는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습진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히게 두지 말아야 하며 명료한 의식을 유지해야 합니다(때론 이게 힘들더라도요).

습진이 비유라고 본다면, 습진이 당신에게 뭘 나타낸다고 생각하나요?

피부가 실은 바깥 세상과 내 자신 사이의 경계라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경계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일하며 어떤 점을 배웠나요?

저에게 이는 일반적인 치료법을 뒤로 하고 (계급에 기반한) 의료 보험 체계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큰 도약이었습니다.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병을 앓는 것은 특히 바깥 세상이 (증상을) 볼 수 있을 때,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C.R.E.M.E이 없었다면 (고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많은 멋진 이들에게서 엄청난 지지와 연대를 얻었습니다. 도움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저는 이게 제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런 깨달음은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는 접근가능하다

(애니 세가라)

라니아 호퍼

더욱 접근가능해진 튀르키스 로사 릴라 빌라.

(다른 많은 예시 중) 한 가지 예시.

튀르키스 로사 릴라 빌라(터키이즈 핑크 퍼플 빌라)는 빈에 있는 상담과 지원을 위한 공간이자, 카페이자 바이며, LGBTIQ+를 위한 거주 공간인 시민회관이다. 널리 알려진 눈에 띄는 이 건물과 건물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1982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왔다. 라니아 호퍼는 튀르키스 로사 릴라 빌라를 접근가능하게 만든 집단에 속하였다.

나는 이 글을 많은 이들과, 문제와, 투쟁과 연관된 연결망의 한 부분으로 작성하고 있다. 글을 시작하며 이를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왜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그리고 내가 하거나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내가 오기 전에 있던 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일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날 하는 일의 기초를 만들어낸 일들에 대해 쓰고, 공유하고, 사유하고, 노래하고, 공연하고, 행했기에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는 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인지한(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는 점) 상태에서 글을 쓰고있다.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주장하고, 나누고 행동할 수 있어 신난다. 이 글에서는 튀르키스 로사 릴라 빌라를 개조하는 과정 내내 나를 떠나지 않은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이 건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건물을 개조하는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 이 글은 개조 작업에 대한 나의 이해와 맥락화에 기반한 요약이다. 나는 또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변화가 가능하며,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하고 귀 기울인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한다면 자원을 나누고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전하고자 한다.

폭력적 환경

빈에 거주하는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엘리자베스 매그들리너는 우리 모두 장애를 상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만성질환, 상이한 신체, 일시적이며 항상 변화하는 삶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고민거리다. 누군가는 이를 빨리 깨우치지만, 일부는 뒤늦게, 그리고 다른 이들은 아마 평생 이를 알지 못한다. 엘리자베스 매그들리너의 글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장애를 극적인 사건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장애 = 극적인 사건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

그러나 실제 등식은 뭔가 다르다. 사람이 있다. 신체가 있다. 신체라는 구조가 있다. 보조기구(목발, 휠체어 등)이 있다. 장애를 만드는 환경이 있다.

환경 = 극적인 사건

이전에 있었던 다른 많은 저서들처럼 미카 윌스타인의 저서 나는 퀴어페미니스트 사이보그지만 괜찮다는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을 꿈아 장애를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폭력적 구조를 드러낸다.

폭력적 구조는 병렬적으로 존재해 서로를 강화하며, 해를 끼친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는 이를 빨리, 일부는 늦게, 어떤 이들은 평생 깨우치지 못한다. 이걸 아는 데에는 별 수고가 들지도 않는다. 말하지 말고 그냥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장애 정의 행동가 미카 민거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술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https://leavingevidence.wordpress.com>).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폭력을 행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폭력 행위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촉발시키는지 귀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개방성 있는 공간 말이다.

내가 헤쳐 나가는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

튀르키스 로사 릴라 빌라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현재도 여전히 나에게 다양한 모습을 지닌 곳이다. 이는 경쟁적인 장소이며, 도착하고 지나가는 장소이다. 이 공간은 배제와 장벽이라는 기제로 포화된 상태다. 많은 투쟁이 이뤄진 장소이며, 여러 다른 점들이 이곳에서 가시화되어 왔다.

가장 긴 시간동안, 백인이 이곳의 지배적인 인종이었다. 가장 긴 시간동안, 이곳은 장애인 차별주의적인 장소였다. 1992년부터, 건물의 구조적 장벽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18년이 되어서야 상담 센터와 카페가 있는 1층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장소가 되었다. 이를 이야기하며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른 오랜 기간동안,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였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해당 과정에서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다는(아니라는) 점은 매우 힘을 북돋아 준다. 그런 까닭에 이 역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계속해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간은 접근불가능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 문제는 다른 수많은 장벽들 중 한 가지이며, 이 장벽은 공간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머리 속에 있다는 걸 짚고자 다른 많은 이들 중 다시 엘리자베스 매그들리너의 말을 인용한다.

책임 / 자원

이 공간에 누가 있고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실행되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 어떤 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찾아보는 것 역시 나에게 달려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오드리 로드는 자신의 자원을 신중하게 인지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함을 다시금 알게 해주었다. 그녀는 또한 내가 종종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는 자원 그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관계 / 집단적 과정

이는 제가 속한 관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나는 각 개인별 자원이 얼마나 상이한지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밟는 모든 단계가 기존의 지식과 투쟁의 기초를 다지고 되풀이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한 내가 상호의존적인, 그러니까 나 역시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도나

헤러웨이는 관계성을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생각이자 세상을 바꾸는 허구”라고 불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내가 이미 몇 년 동안 공동체 경제의 일원이었다면, 나는 튀르키스 로사 릴라 빌라를 개조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처음부터, 나는 내가 한계에 달했을 때, 이 과정 내내 나를 도와줄 이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도록 배웠다. 다른 집단적 과정에 관여하면서, 나는 많이 배웠으며, 다시금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다. 논쟁과 실패 속에서, 공동체에서 일하는 데 신념을 가지고 다시 추진력을 얻어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하여 폭력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대안적인 집단적 구조물을 만들고자 한다. 나는 장려하고, 비판하고, 비판받고, 주장하고, 잠을 자고 싶다. 나는 인정받고, 인정하고, 피로해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집합적으로 조직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자고 싶다.



Painting by the artist Iris Kopera

제미나 린드홀름, 두폭화 사진(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평생이 남았다, 2017, 디지털 포스터, 가변 크기; 축 기념일, (10년을 투병 생활한 아티스트의 초상), 2017, 디지털 사진, 가변 크기

내세

불구의 속인과 진(zine) 창조에 관하여

제미나 린드홀름

본 글은 2019년 베르겐 어셈블리에서 '팔리아먼트 오브 바디스: 더 임파서블 팔리아먼트'(몸의 집회: 불가능한 집회)로 본래 공개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미나 린드홀름입니다. 저는 헬싱키의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예술 교육자 및 제작자입니다. 제가 창시한 '별것 아닌/특별한 진'은 예술 안에서/예술로써/예술을 통해서/예술과 함께 광기/병적 행동/불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적, 광적, 병적, 불구적 플랫폼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2016년 시작되었지만, 2018년인 지난 가을에 첫 발행 되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기고와 기여로 매거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발행지에는 18명의 예술가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 배경은 현대 미술과 예술 교육학의 교차로에 있습니다. 제 대학 생활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면, 장애와 병들은 아직도 종종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배제당하고, 일반 학문, 교육계 커뮤니티와 일반적 일상생활 바깥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10년,
120달,
522주,
3652일,
87600시간,
5258880분,
315567360초
제미나 린드홀름 & 류머티스성 관절염

특별 예술 교육이라는 하나의 필수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알거나 습득할 수 있는' 고정된 무언가로 인지되거나, 의학 용어에 한정되어 사용됩니다. 이런 접근은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고통이 따르는 만성

10
years

120
months

522
weeks

3652
days

87600
hours

5258880
minutes

315567360
seconds

Jemina Lindholm & Rheumathoid Arthritis

질병을 앓는 예술가 및 예술 교육자로서의 제 경험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계 한국인 작가인 요한나 헤드바의 2015년 LA WCCW에서의 강연 제목이 제 감정을 완벽하게 대변해줍니다: '내 몸은 고통의 감옥이다. 신비로운 곳으로 남겨두는 동시에, 사랑하고 싶고 정치적인 몸으로도 기능하길 바란다.' 안심하고 치유되길 바라는 희망과 변화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위 문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만성적인 질병과 장애를 동반한 삶의 질과 복잡성을 함축해낸 문장이다. 저는 우선 금융, 신자유주의 시대의 장애인 차별, 생물 정치학에 관한 장애 연구 분야와 최근 이론과 장애의 역사에 관해 현 사회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대체하려 동맹을 만들고 그 조직을 지지하려는 행동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건강 혹은 건강 돌봄에 대한 규범적 개념과 같은 질문과 비판적 토론을 위한 조직이죠. 예를 들자면 지지 집단, 소셜 미디어 밈 계정, 브이로그, 블로그, 책 읽기 모임, 예술 플랫폼과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의학적 맥락과 반대에 있는 조직이죠. 매거진도 이러한 플랫폼 혹은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지식의 생산과 공유를 일으키고, 대안적인 토론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죠.



무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데 대항하는 공간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장애인 차별 시스템에 비교해 다른 논리와 태도, 이점을 보이는 작업입니다. 헤드바는 연약함을 존재의 디폴트 모드로 볼 것을 촉구하며, '돌봄의 정치'(p. 68)를 제안합니다. 돌봄과 상호 의존은 우리가 살아가는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반자본주의 시위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돌봄에 관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지칭되며 보이지 않는 영역에 감추어져 있던 간호와 양육, 돌봄을 실행하는 것이다. 서로의 취약성, 허약함, 불안정성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그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로를 보호하며 공동체를 운영하고 생활화하는 것이다. 급진적 연대감, 상호의존적 교제, 돌봄의 정치이다.'

엘리자 찬들러의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불구의 개념에 따라 '예술적 공존'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예술적 연구에서, 저의 초점은 매거진 만들기, 장애, 페미니스트 교육학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개인과 정체성을 뛰어넘는 광의의, 집단적 사회 문제 속 장애에 대한 이론화와 오명과 비극 너머의 장애에 대해 말하려는 장애가 있고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예술가의 개인적 경험을 위한 공간 창조의 효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 가설에 따르면 수집 매거진은 비평과 창조를 한데 모은 '불구의' 공간이 되어, 댄 구들리, 레베카 로툼, 캐서린 런스워-콜레가 소개한 활동주의, 예술, 관계성'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집 작업으로 끊임없이 변형하고 장애를 통해 우리의 온전한 존재를 보면서, 다수의 단순화할 수 없는 차이점과 고정관념과 대표에 대한 부담 및 흑백논리를 넘어서 전형 간에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거진 창조 작업과 '별것 아닌/특별한 매거진'은 수집 작업이자, 저항의 공간, 토의의 장, 예술 실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재창조, 페미니스트 교육을 위한 집단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거진을 질서가 없고, 변하지 않으며, 일관성 없는 불구의 포맷이나 불구의 예술 형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거진이 '매우 짧은 생명력을 가진' 잡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절반의 생', '내세'로 일컬어 질 수도 있습니다. '절반의 생'이란 매거진의 혼돈적 형태와 매거진 창조의 비밀관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이슈에 대해 매거진의 이름을 바꾸거나 한 번에 많은 이슈를 다루어 매거진이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의 생'을 산 것이죠. 반면, 내세는 매거진이 사실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이후의 포맷이자 운동이었고, 개인적 매거진을 다룰 때 사용되었죠) 궤적을 변형시키며 이어지는 회절 파동과 같이 계속되는 내세를 의미합니다. 특별 매거진의 편집자, 제출자, 독자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불구의 숙인이거나 광적/병적/불구인 것 그리고 베르겐 어셈블리 2019의 '사실, 망자는 죽지 않았다'라는 주제와 공명합니다.

린드홈, 제미나 (2018) '별것 아닌/특별한 진: 비판적 장애 연구에 대한 접근과 페미니스트 예술 교육 실천으로서의 수집 매거진' 예술 교육에서의 페미니즘과 퀴어, 헬싱키: 알토 아츠 북스 헤드바, 요한나 (2015) 아픈 여자 이론. 검색 출처: <http://www.maskmagazine.com/not-again/struggle/sick-woman-theory>.

나를 분노하게 하는, 나를 쫓아내는 시선들.

엘리아 워티

- 1 -

수년 전 나는 너에게 이야기했다
놀라운 존재들,
경이에 가득 차 나의 세계 속을
헤매는 이들에 대하여

그 세계들은 나를 넓혀주고
나의 밤들을 마법의 빛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나를 꼭 붙잡았다, 가끔은
너무 빠듯하게 붙잡았다, 이
세계가 궁금한 나를.

나는 너에게 나의 기쁨들을 이야기했다
그 세계들이 나와 함께 학교까지
걸어주었던 그 때의 기쁨을
나는 공포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나를 장악해버렸던 그 때의 공포를.

나는 너에게 이야기했고 너는 이해했다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가?
너는 나를 바라보았고
미소를 띄며 끄덕였다.

그런 다음 너는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비밀로 해야 돼.
정상적이지 않아.
너만 이러는 거야.”

나는 순응했고 그리고 비밀스럽게
그 비밀을
나와 단둘이
가두었다.

나는 계속 목욕을 했다 그리고 가끔은
내 세계들로 흠뻑 빠져들었다,
내 주변으로는 벽을 쌓으면서.

나는 계속 가끔씩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두 번
다시 털어놓지 않았다.

- 2 -

몇 해가 흐르고 흘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나는 내 세계들을 통역해줄,
날말을 찾아다녔다.

내 주변에 놓인 돌 속의
갈라진 틈을 찾아다녔다

이 세계와 이어지려고,
존재하려고

가끔은 세계들 사이
여기 저기에서 춤을 추었다.
가끔 너는 나의 강에 몸을 담갔다.
감정을 나누려고

너도 들었는가?
나의 강의 경이로운 깊이를 너도 느꼈는가?
그래서 당신이 그 이후 다시는
내 세계를 건드리지 않은 것일까?

너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렸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네 세계들이 분노하고 있니?”
당신의 눈이 넌지시 물어왔다

“아니!” 나는 답했다.
“분노가 나 자신인 건 아니야.
하지만 너의 질문들과 그 시선들이
나를 화나게 해.

그들이 나를 너에게서
멀어지게 해

그리고 너와 함께하려 하면
나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해

나는 -나를 떠날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 결눈질 하고 나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른 후

내 안의 세계들이 말라버린 것이다
타인의 목소리들이
나를 뜯어내 장악하고 스며들고
내 안에 영원히 머물렀다.

- 3 -

몇 년 전, 그 목소리들은 나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불협화음으로 변했다.

그런 가운데 그 불협화음이 내게 말했다
과거에서 온 목소리가
현재에게 말을 걸고
나의 현존에 깊이 들어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비밀로 해야 돼.
정상적이지 않아.
너만 이러는 거야.”

하지만 나는 밀쳐버렸고,
다르게 결정해버렸다,
그리고는 세상을
내 삶으로 초대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더이상 아무데나 있고 되는데로 살지 않을 거야,
지금 나는 베를린에 있잖아, 여기에는
모두들 너무나 좌파적이고 귀여잖아.

그들은 ‘말도 안돼/미쳤어crazy’를 모든 문장에 섞어 쓰고
심지어 음악 마저도 ‘광기/분노mad’라고,
‘병자/아픔sick’이라고 불러.
분노와 병과 광기에 대한 그 모든 대화들
그중 어쩌면 나를 위한 공간도 있지 않겠어?”

질문들이 떴지어 오면 힘들어진다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의 소리들이 몰려온다
말들이, 곳곳의 질문들이 떴지어 온다
그럼 나는 대답을 ...
...

침묵으로 리듬을 깨버린다.
나는 질문을 다르게 듣기 때문에
나의 답은 방 안을 둥둥 떠다닌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는
나의 답은 허공에서 떨어 꿈지락거리다 툭 떨어져
나의 벽을 다시 쌓아 나간다.

등뒤에서 오가는 당신들의 시선과 쑥덕거림으로
나는 천천히 분노에 차오른다
조금씩 당신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아주 조금 더 나에게서 멀어진다.

- 4 -

나는 더이상 모른다 내가 어디인지,
아님 다른 곳에 있는지,
심지어는,
혹은 바람에 떠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나를 보고 바라본다
나는 나에게서 멀어졌다
당신들이 아주 조금씩,
그들이 조금씩.
그리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나를 밀어냈다.

그리고, 나도 잘 안다!
배웠던 말인데-
이건 심리... 적...
그,아니, 논리적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단 한곳이 뿐이다
논리적인 곳.
심리...아니, 아무튼!

나는 그곳에 갔고 그곳은 꽤나 멋졌다
그들은 나에게 무얼 마시겠느냐고 물어본다.
정말이지 그 사람은 그저 내 말을 들었다
나를 모욕하거나 몰래 쑥덕대지 않고

활동적이고, 찬사를 받고, 자원 지향적이었다

그런 한편 어떤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내가 관찰 당하고, 연구되고, 분류되고,
숫자들로 적혀 표에 입력되는 것이다.

모두 끝나면 그들은 나를
심리-아니, 논리적으로
진단한다
혹은 두가지를, 혹은 세가지를

숫자와 문자에 열중한 그들은
나를 어느 동떨어진/버려진othered 세계로 보낸다
그들로부터 먼 곳
여기로부터 먼 곳
나로부터 먼 곳
정신병자의 쓰레기통loony bin 에 나를 버린다.

나의 쓰레기통은 X2120F4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든, 이 통의 목표다.
그렇게 기술되었고
기록되었다
그러니 어떻게든 맞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이다!
아, 그러니까, 나 말이다.
아닌가?

- 5 -

몇달 후 나는 병원에서 나왔다,
그 모든 저항 행동에 대한 진단을 받아 들고,
내 언어와 존재는 잊어버렸다.
그 대신 나는 분석하고 분류하고
자신을 숫자와 표에 넣는 법을 배웠다.

존재들과 놀라움과 강물들은 사라졌다
대신 내가 짊어진 책가방에 들은 것은
나에 대한 지식,
심리...아니 논리적으로 분류된,
외부가 정의하고

끼워 맞춘 것들,
나의 경험으로부터 단절된 것들,
의학 렌즈를 통하여 설명된 것들이다.

통합을 목표로 한
자기 변신!
복지사를 고용하고 혼자서 살아가며
나의 집에 주도권을 부여한다
사람과 어울리고 나머지는 숨기고
친구의 걱정을 “덜어주고”
내 최선 만을 보여준다.

- 6 -

그리고 몇 주 전 여기에 또 다시
목소리들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책가방과 쓰레기통을 꺾어 놓고도 나는
준비가 부족하여
그들의 게임을 오판했다.

장벽들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다리들은 무너져갔다.
그들은 나에게로 왔고 무조건적으로
내면의 방들을 메워갔다.

알고 있다, 나 혼자서 맞설 수는 없다.
그들은 여기에 나를 붕괴하러 온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물었다고 말하면 어떻겠는가,
이제 당신 내 말을 좀 들어 줄래요?

내가 당신의 질문으로 말해도 될까요?
내가 이 혀로 말해볼까요?
아니 안하는게 낫겠군요! 기억하세요
“이건비밀로해야돼정상적이지않아너만이라는거야.”

나도 더이상 갈 곳을 모른다
내가 아는 것들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허나 대안 역시 나에게에는 부족하다

나는 당신과 당신들의 공간을 믿지 않는다.
달라진/타자화한othering 문장으로 가득한 그 언어도.
그들을 믿을 바에는 벽 뒤에 숨을 것이다
심리-그것과 그 울음소리를 두려워하며.

나의 일부가 된 그 시선들
그 시선 안에서 가끔 나는 당신들을 본다
더는 알 수 없다, 이건 나의 투영인가?
아니면 그저 내 두려움의 반영인가?

내가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이다.
왜냐면 나는 나만의 저택에 그리고 정..., 정신-, 정신과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나는 나로부터 멀어져 가고
나를 가둔다
매순간 관찰하고, 분류하고, 숨긴다
내가 가진 전부를.

나는 멀리 가버린 나를 다시 끌고 오고 싶다.
그 정,정신-,정신병리의 선반에서 나를 꺼내고 싶다
조금씩 조금씩, 내 행동으로부터
내가 나를 보고 당신을 대하는 방식으로부터.

나는 내 세계들을 다시 찾으려 한다.
그들을 그때가 아닌 지금에 연결시킬 것이다.
내가 경이에 가득 차 이 세계를 유랑하도록
도와줄 말들을 찾고 있다.

나는 당신들 모두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처럼 수많은 세계들을 헤매고 있는 당신들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당신들과 공유한다.
존재들과 세계들과 내가 들은 목소리를.

그들을 나는 당신들과 나눈다
당신들은 아마 선들 사이에서 당신 세계를
알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나는 당신들과 나눈다,
당신들은 아직 세계를 갖지 못했다 하여도

이 세상에 당신만의 습관으로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과 나를 연결하면서
나는 깨닫는다, 나의 행동이
숨긴 것들을 나눔으로써
벽을 천천히 넘어서고 있음을.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오늘 여기 말을 맺는다
나는 다른 방법을 믿는다.
그 다른 방법으로 나는 같이 헤맬 것이다.
혼자 보다는 당신과 나 함께.

-독일어 원문을 타냐바르비안Tanja Barbian의
구술 해석을 기반으로하여 번역한 초약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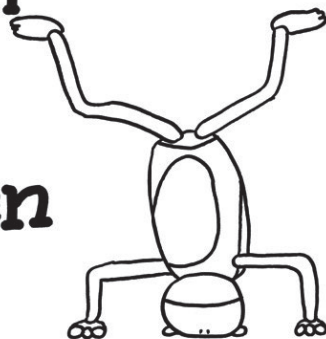
WHAT FASCINATES
ME ABOUT MY OWN
DEATH IS
THAT I'LL
COMPLETELY
DISAPPEAR.



I won my presence
over my absence



I quit to walk in
circles
when I found
out
that circling around myself
is getting me to the same point.





R.I.P. Philmarie, mural, Innsbruck, 2018



Valérie Favre, Du bureau des suicides, 2019, 12 x 16 cm, gouache and type machine

REINVENTING
MY
STRANGENESS
AS AN
ART FORM
THAT ONLY I
AM THE PERFECT
PRACTITIONER OF

